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CONTENTS



I. 청년인턴

1.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다섯 번째 사번 06
2. 인턴, 고마운 취업 페이스 메이커 10
3. 히말라야에서 꾸었던 꿈, 청년인턴을 통해 이루다 14
4. 2번의 청년인턴, 기회가 되다 18
5. 청년인턴, 꿈을 향한 첫 번째 출항 22
6. 청년인턴이란 경험이 준 선물 26



I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1. Build Your Own House! 32
2. 다시, 「워킹맘」이 되다! 36
3. 〈나이 제한 없음〉 40
4. 편견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열려있는 채용 NCS 45
5.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49
6. 성별, 나이, 학벌! 어떤 것도 당신의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다 52



Ⅲ. 고졸 채용

1. 대졸 취업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편견은 No No No!	58
2. 인생의 이정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63
3.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68
4. 나를 Pick Me! Pick Me!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나를 갈고 닦는다!	73
5. 나의 꿈과 미래는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원동력	77
6. 성공의 동지	82



Ⅳ. 장애인 채용

1.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90
2.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95
3. 장애인으로서의 취업, 그 이상의 환경을 바라며	99
4. 다시 뛰는 인생 2막! 국민연금과 함께!	103
5. 배려를 통해 입사하여 주위를 돌아보게 되다	107
6. “나 한국재정정보원 다니다!!”	111



Ⅴ. 지역인재 채용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인·학교·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118
2. P2C (지방에서, 중앙으로)	121
3. 지방만의 강점을 살린 공공기관 취업도전기	124
4.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인재 합격수기	128
5. 준비된 인재, 전략적인 취업 스토리!	132
6. 대한민국 균형 발전, 균형 잡힌 인재 채용	135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

청년인턴

- 1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다섯 번째 사번
- 2 인턴, 고마운 취업 페이스 메이커
- 3 히말라야에서 꾸었던 꿈, 청년인턴을 통해 이루다
- 4 2번의 청년인턴, 기회가 되다
- 5 청년인턴, 꿈을 향한 첫 번째 출항
- 6 청년인턴이란 경험이 준 선물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다섯 번째 사변

신용보증기금 | 000



“잠시만요, 000번 지원자.”

신용보증기금 최종면접에서 단체인사를 하고 면접장에서 나가려던 찰나, 한 임원 분께서 제 번호를 부르셨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인턴 당시 수상한 공모전에 어떤 내용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인턴과 출납, 공모전을 하면서까지 왜 신용보증기금에 오고 싶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첫 째로 나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일치하며, 두 번째로 인턴 당시 신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사장님이 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저의 대답이 나쁘지 않았던 걸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2018년도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공채에 합격하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다섯 번째 사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과 함께했던 나의 취업준비생활

저의 취업준비생활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계약직 출납 업무 및 청년인턴으로 실무를 배웠으며, 무기계약직 출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기금에서만 총 다섯 개의 사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마케터의 꿈을 가졌었

고, 문화기획사를 창업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 국립대의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입니다. 높은 토익점수나 고급 자격증도, 엄청난 스펙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만큼 대학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수의 공모전에 도전했고 유명 마케팅 공모전에서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마케팅부서, 광고회사에서도 인턴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마케팅부서 최종면접에서 5번을 탈락했고, 이 길을 계속 가야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쉽게 방향을 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신용보증기금 출납 공고였습니다. 3시간 동안 영업점 마감, 예산집행, 소모품구매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었고, 취업준비를 하며 병행하기에 시간적 부담이 없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신용보증기금과 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Q “새로 온 인턴, 오○○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출납을 하며 저는 점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주변 직원 분들께서 항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 또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관련된 실무를 해 보고 싶었고, 2017년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출납을 하며 느꼈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솔직히 말했고, 직접 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저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턴 첫 날, 저는 그 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아는 분들이 계신 지점이었지만, 인턴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마음에 굉장히 설렐었습니다. 첫 날에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안녕하십니까, 새로 온 인턴 오○○ 입니다.”라고 크게 인사를 하며 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배들이 엄청나게 웃으며 반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Q 천 원, 백만 원, 십 억 단위?

4개월 간 청년인턴을 하며 저는 주로 서류검토, 보증서 연장 및 갱신, 고객응대 업무를 했습니다. 인문학 전공자의 금융 업무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천 원, 백만 원, 십 억 단위로 숫자를 읽는 것도 어색했고, 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해 보증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이라는 기회로 인문학 전공자인 저도 금융실무를 해볼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저의 길을 찾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Q 실무경험과 공모전 수상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은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보증서 연장 담당자로서 제가 맡아야 하는 업무가 확실히 정해져 있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저에게 “신보 덕분에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사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금형제조업을 하던 사장님은 백색가전 시장이 어려워 지자 유압실린더 제조를 하게 되었고 그 때 신용보증기금에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선 “여기 참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다음엔 꼭 정직원이 되어서 응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턴기간 중 새로운 보증상품 아이디어를 제시해 ‘신용보증기금 열린혁신 국민생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인턴을 한 친구와 함께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창업기업을 위한 보증상품은 많지만, 장기간 이용고객을 위한 상품이 부재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서 장기간 이용 고객 중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하청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4개월간 인턴을 하며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경험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청년인턴이 끝나던 마지막 날, 업무를 정리하고 아쉬운 마음에 곱뜨며 자리를 정리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애꿎은 전화기를 들었다 올려보기도 하고 보증서 연장 업무 가이드를 정리하며 언젠가 다시 이 가이드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Q 신용보증기금의 안방마님

마지막 인사도 잠시, 저는 다시 같은 지점에 출납직원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저에게 직원 분들은 안방마님이라며 놀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공채를 준비했습니다.

인문학 전공자인지라 경영, 경제 등 공부를 정말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NCS스터디, 시사면접스터디, 경제논술스터디 등을 만들어 스터디원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힘을 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스터디원 대부분이 공기업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Q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사변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신입직원 공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대 인문학 전공자로 금융공기업은 꿈도 꺾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쉽게 방향을 틀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청년인턴 등의 기회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을 알게 되었고, 직접 업무를 수행해보면서 또 다른 저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길을 찾다보면 결국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용보증기금에서만 다섯 번의 사변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새로 발급받지 않을, 나의 마지막 사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변은 오○○ 주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턴, 고마운 취업 페이스 메이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백○○



“우리 공단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며, 나는 그 일을 위해 입사한 신입직원임을 잊지 않는다.” 연수원 강당을 가득 메우는 목소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동안 때때로 90명의 동기들과 함께 이 비전문을 읊었습니다. 저는 울컥 차오르는 무언가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신입연수 하루하루가 유익했고 행복했습니다. 그간 취업준비로 고생했던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상받는 건가 싶어 감격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바라던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의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단연코 5개월간 국민연금에서의 인턴경험입니다. 저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한 경험밖에 없었고, 다른 사회초년생보다 많은 나이에,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취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가, 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지원하기까지

저는 ‘젊은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장 열악하고 힘들다는 사회복지 현장인 아동양육시설로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전공인 상담심리와 사회복지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과 단발적인 복지 서비스로, 업무의 낮은 효율과 궁극적 복지목표 미달성이 반복되면서 저는 쉽게 소진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좋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만 있기보다 체계를 세우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직무능력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단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지역을 옮기게 되어 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새롭게 진로탐색을 하던 중,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경험하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해보고 싶단 마음도 생겼습니다. 일상과 균형을 이루며 쉽게 소진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분야 공공기관에 입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취업 준비가 너무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평소 필요성을 느꼈던 사무행정 및 회계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400여 시간의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필요 자격증도 대부분 취득하였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취업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워낙 취업 경쟁이 과열되어 인턴 경쟁률도 높았고, 저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이 모든 기회를 차지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당시, 저는 인턴 합격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큰 성취를 이룬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우선 중간목표 격으로 인턴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인턴을 지원하면서도 ‘난 결혼도 했고, 나이도 많은 편인데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웬만한 신입직원보다 나이가 많을텐데, 나보다 어린 직원에게 일을 배운다면 창피할 거 같아.’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로 주저하며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평생 큰 후회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난 아직 청년(만34세 미만)이고, 그 동안 실무능력도 잘 준비했으니 인턴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열심히 해보자! 자존심 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는 시간을 보내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턴면접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성, 적성, 실무능력만을 자격요건으로 삼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는 저의 결혼여부나 나이보다 공단 업무 이해도와 준비된 업무 수행능력 위주로만 질문했습니다. 취업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과 나이는 오히려 저의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정과 책임감 있는 태도, 나이와 함께 쌓인 실무경험들이 오히려 면접에서 저를 빛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청년인턴에 합격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얻게 되다 동시에 도전하는 자세도 갖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통합전공시험 준비도 거침없이 도전하였습니다. 경영, 경제, 행정, 법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지만 ‘해보자.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각 분야를 공부하면서, 각 학문이 사회운영에 필수적 요소들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세상의 흐름을 해석하는 관점이 넓어진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직원들로부터 공공기관 업무수행자로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법령집 및 업무 매뉴얼을 읽고 외우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객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이 된다면 저도 저렇게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준비기간 동안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턴을 한 덕분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며 운동하는 일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단 직원들에게 응원을 받으며 실질적인 공단 취업 가이드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공단 업무에 필요한 행정실무능력과 고객응대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 수입이었던 인턴 월급 덕분에 부담 없이 취업에 필요한 강의와 교재를 구입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으로 취업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만남

이렇게 유익했던 5개월 인턴 생활이 마무리 지어질 때 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여기다! 내가 찾던 곳!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경제 지원 체계를 지원해주는 기관!’ 국민연금인턴을 하는 동안 4대 보험 업무를 하며 ‘고용의 중요성’을 깊게 느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용이 보장될 때 사회적 비용이 줄고, 사회보장 제도도 더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효과가 생기겠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고용을 통해 장애인도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였습니다.

인턴, 나의 페이스메이커

저는 국가가 제공하는 최고의 취업지원과정인 ‘청년인턴’을 통해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취업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길었고 외로웠고 아득하기만 하던 취업 준비 과정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앞으로 공단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페이스를 유지하며 힘든 취업준비기간을 지나왔던 것처럼 그 때의 삶의 지혜를 떠올리면서 지내면 거뜰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제공해준 좋은 기회로, 중요한 삶의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누린 한 국민으로서, 제가 공단에서 뵈게 될 장애인 고객을 더 전심으로 섬기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꾸었던 꿈, 청년인턴을 통해 이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



히말라야에서 품은 작은 신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열중하다가 홀연히 네팔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토익, 한국사, 컴퓨터 자격증 등 스펙 높이기에만 몰두하던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무언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네팔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푼힐이라는 전망대를 목표로, 삼일 동안 하루에 열 시간씩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 삼천 계단을 오르며 진로에 대한 작은 신념을 가지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힘겹게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르던 중 세 명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와 친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어디 가는 지 물어보니 이 계단너머 학교를 가는 길이다 하였습니다. 경외감까지 들면서 한 가지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그럼 병원을 가야할 때는 어떻게 하지?’ 의문도 잠시, 아이들과 헤어진 후 경사 높은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려다보니, 평상에서 놀고 있던 세 살배기 아이가 앞으로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쩔 줄 모르며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고만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서둘러다가 구급약을 꺼내 아이의 얼굴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연신 고마워하는 엄마에게 배낭에 있던 모든 구급약을 꺼내 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

고 제 마음 속에 작은 신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받게 하고 싶다.’

Q 보이지 않던 희망의 문, 청년인턴이 열어준다

여행에서 얻은 작은 신념을 품고 나의 길을 찾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전인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보게 되었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때 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체험형 인턴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달리 저의 ‘스펙’은 부족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던 저는 취업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예비 불합격 낙인을 받았습니다. 보진 전공이 아니므로 불합격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은 전공에 대한 편견을 깨주었고 그 다음주, 저는 서류발표에 합격하였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꼭 잡겠다 다짐하며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외활동과 경험들을 활용하여 저의 능동적인 자세, 성실함, 책임감을 보여드렸고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여행 전, 아홉 개의 인턴 지원서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며 마음에 품었던 작은 신념을 가지고 진심으로 쓴 열 번째 지원서에서 너무나도 값진 청년 인턴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취업상담 선생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만 같아 보였던, 보이지 않던 희망의 문을 청년인턴이 열쇠로 찰칵하고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청년인턴으로부터 희망의 문이 열렸고, 용기를 가득 얻은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심사평가1부 인턴사원이 되었습니다.

Q 흔들리던 나침반이 마침내 가리킨 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표로 진료비와 요양급여를 심사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힘쓰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던 심사평가1부에 배치되었습니다. 1차 심사에서 부적절한 청구로 지정된 건을 넘겨받아 그 다음 단계인 재심사와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접수, 자문, 결과 등록 그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업무를 맡았습니다. 접수된 건들을 코드에 맞게 분류해 색인 등록을 하고 척추, 어깨, 요양 관련 자문의뢰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전문가 분들의 자문이 끝나면 그 결과를 모아 전산 시스템에 등록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들어오는 심사 민원 전화를 받아 해당 담당 선생님께 보고 드리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힘쓰는 이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기회는 단순한 인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흔들리던 진로 나침반이 마침내 멈추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당한 급여 보장을 위해 많은 전문가 분들과 직원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힘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제가 맡은 일에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던 희망의 문을 청년인턴이 열어주었고, 흔들림을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나침반은 청년인턴의 경험 이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마침내 가리킨 곳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보냈던 5개월간의 체험형 인턴 경험은 불과 그 해 초, 불안감에 휩싸여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던 저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정표의 끝에서 만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의 청년 인턴 경험 덕분에 제가 정말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인턴 수료 후 올라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채용 공고에 도전하였습니다. 사실 이 도전은 첫 번째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인턴 전, 두 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채용 지원을 하였고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두 번의 불합격,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에겐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 인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어 세 번째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자소서에는 단순히 경력 사항에 한 줄 더 추가 된 것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년 인턴을 하며 마주하였던 모든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현장 체험 기회, 실무 업무를 지원하며 간접적으로 느껴본 공직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한 확신이 커지며 더욱 다져진 열정 등이 모두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서류합격에 이어 필기 합격까지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면접에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요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최종 합격 발표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해 5월, 심평원에서의 청년인턴으로 시작되었던 도전의 결말이 나왔습니다. 청년인턴을 하며 발견한 제 이정표의 끝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영원한 동반자

올해의 마지막 달이 지나면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년을 함께한 주임이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올 여름부터 징수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꿈꿨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나”를 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객 상담의 접점에 있다 보니 어려운 순간도 마주하지만, 상담 후 “덕분에 잘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실 때면 정말 뿌듯하고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간 여행지, 히말라야에서 한 사건을 만났고 그로부터 작은 신념을 품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 경험은 이 막연해만 보였던 신념을 실현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던 순간, 제가 정말 원하는 방향의 길을 알려주었으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3년을 넘어, 앞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가는 공단인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의 영원한 동반자로 남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의 비전인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글로벌건강보장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2번의 청년인턴, 기회가 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강○○



🔍 후배들을 위해 쓰는 글

“두 번째 청년인턴 생활이 되겠지만 첫 번째와는 다른, 새로운 기회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청년인턴에 응시했을 때, 면접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이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청년인턴을 두 번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말이다. 취업준비생이 되고 난 이후 줄곧 공채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첫 번째 청년인턴 기간 끝나고 나는 곧장 사기업에 취업을 했다. 이제 청년인턴 제도는 나와 상관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후 사기업을 퇴사하고 재취업 준비를 할 때도 청년인턴 공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채에만 집중했었다. 그리고 처참히 실패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조급함과 좁은 시야였다. 공채라는 정공법이 아닌, 조금 돌아가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이 때론 더 먹힐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이 수기를 쓰기로 결심한 건, 과거의 나처럼 좁은 시야와 조급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후배들을 위함이다.

🔍 같은면서도 달랐던, 나의 청년인턴 생활

내 인생 첫 번째 청년인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서비스팀에서 시작했다. 4개월 체험형 인턴이었고, 혜택은 서류전형 1회 면제였다. 이때의 인턴 생활은 상상만 했던 공항에서의 근무를 실제로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었다. 특히 인턴끼리 조를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회가 많았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공항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신사업 기획, 우수 해외공항 서비스 사례 활용 방안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보다 낫선 실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이후 공항에서의 현장 근무 경험을 살려 사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스스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깨닫고 퇴사를 결심했다. 이후 1년 동안, 공공기업 입사를 위해 정공법인 공채만을 준비했지만 그 결과는 암담했다. 계속되는 불합격에 지친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해외로 떠났다. 그리고 이것은 전화위복이 되어주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조금씩 조급함이 사라졌고 시야가 넓어졌다. 특히 여행하면서 해외 곳곳에 있는 한인마트를 많이 둘러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과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관심은 귀국 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aT 청년인턴 공고가 떴는데 이때 나는 처음으로 공채만 하겠다는 아집을 버렸다. 여행을 통해 취업에 대한 조급함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두 번째 청년인턴 생활이 되어 내게 돌아왔다. 경영지원부에서 4개월 간 근무하면서, 첫 번째 인턴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우선 실무에 상당히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임직원들을 위한 사내 계약퀴즈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보았고, 우선구매제도 기업 리스트를 구축하거나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받는 등 공기업에 꼭 필요한 실무를 배웠다. 특히 청년인턴에 대한 혜택이 서류 및 필기시험 일부 면제로 굉장히 컸었다. 뿐만 아니라 공채에서 인턴 쿼터가 따로 있어 경쟁률을 낮출 수 있었다. 똑같은 체험형 인턴제도였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체험형 인턴제도였던 것이다.

두 번째 인턴 생활이었던 만큼 보다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인턴 생활을 마칩과 동시에 정규직 공채 최종 합격이라는 성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두 번의 청년 인턴 경험을 통해 배웠던, 과거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를 써내려가 본다.

첫째, 취업은 속도로 평가되는 레이스가 아니다. 1년이 넘도록 경주마처럼 달리고 처참히 실패했던 선배로서 장담할 수 있는 조언이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시야를 넓게 보자.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준비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의 기회는 더 빨리 찾아온다.

둘째, 각 회사마다 청년인턴의 내용도 혜택도 저마다 다르다. 특히 정규직 채용과 직결되지 않는 체험형 청년인턴일지라도 나의 경우처럼, 청년인턴 제도가 공채에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혹시 관심이 가는 회사의 청년인턴 공고가 있다면 이미 청년인턴을 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보기를 바란다. 두 번째의 청년인턴 경험이 더 나은 취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 2번의 청년인턴, 기회가 되다

이 글을 한창 쓰고 있을 때 오랜만에 모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후배 한 명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과거 내가 일했던 사기업이나 공기업 청년인턴 제도에 대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수많은 선배들 중에서도 내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취준생들이 인턴생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입사 후에 인턴 생활이 어떠한지(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지 등)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알음알음 얻어갈 수밖에 없다니. 정부 차원에서 청년인턴 제도에 대한 정보나 실제 경험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주면 좋겠다고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만 보고 달리던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입사를 위한 문은 결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공채라는 지름길 말고도 청년인턴이라는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 많이 열려있다. 그리고 청년인턴이라는 그 경험 자체는 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내게 그러했던 것처럼.

청년인턴, 꿈을 향한 첫 번째 출항

부산항만공사 | 문〇〇



“감사합니다, 항만물류부 인턴사원 문〇〇입니다.”

2018년,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던 첫 민원 전화로 시작된 3개월간의 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은 저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출항이었습니다.

🔍 꿈을 꾸다? 꿈만 꾸다!

고개를 아무리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던 크레인과 장난감처럼 쌓여있던 컨테이너들, 어렸을 적 부산항에서 일하셨던 아버지를 따라가서 보았던 항만의 첫 기억입니다. 이러한 기억을 계기로 대학생이 되어 자연스레 전공을 무역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항만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학점관리, 봉사활동, 전공 자격증 취득은 물론 방학을 통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을 하며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반이 된 이후 자신을 돌아보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의 이력서는 남들과 비슷한 특색 없는 그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는 학교 선배, 교수님, 취업담당 선생님들과 조언을 구하였지만 막막함은 쉽게 걷히질 않았습니다. 항만공사라는 꿈을 포기해야 고민하던 와중,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공개채용이라는 등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Q 청년인턴이라는 등대, 꿈을 향한 항로를 비추어 주다

지방대생에 평범한 스펙을 가진 저에게 항만공사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명과 학점이 적혀있지 않은, 오롯이 나의 열정과 직무에 관한 관심과 능력만이 적혀있는 이력서 제출을 시작으로 NCS 직무채용과정을 거쳐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에 합격하였습니다.

인턴 생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갈 손님이 아닌,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2주간의 교육이 제공됨은 물론, 해운·항만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 부서였던 항만물류부에서 근무를 하며 수행했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컨테이너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의 임금을 받는 현장의 컨테이너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무를 보조하며 항만 구성원들과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느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서였던 홍보부에서는 부산항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정리하고 부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실무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조직의 선진적인 분위기에 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조직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청년인턴 제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블라인드 채용? 숨겨지지 않는 나의 강점!

그렇게 체험형 인턴이 끝 날 무렵, 항만공사 공개채용이 시작되었고 인턴근무 경험과 직무에 대한 지식을 녹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 규정에 따라 이력서에는 ‘OO공사 인턴 경험’이라고 작성하여야 하였지만, 인턴을 하며 느끼고 익혔던 경험은 숨겨지지 않는 나만의 강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면접관들 앞에서 준비

해왔던 대답을 떨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인턴 경험이었습니다. 간절하게, 하지만 솔직하고 당당하게 인턴 시절 했던 업무들과 조직 생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면접관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을 경험하여 조직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면접 전형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당신만의 이야기를 면접관들에게 그저 들려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후자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제한된 업무 경험만 하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입사 과정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정말 요긴했던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아닌, 인턴 시절의 조직 경험이었습니다. 메일 작성하는 방법, 전화 받는 방법, 복사기 사용하는 방법 등 정말 사소한 것들부터 새롭게 익혔던 것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턴 시절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찾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조심스레 물어봤던 저의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어디에 속해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형 인턴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갈수록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간다는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청년인턴 시절 저의 자세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느덧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합격자 발표 당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그 날, 사장님께 임명장을 받았던 그 날, 사원증을 처음 받았던 그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업무를 하며 실수하고 지칠 때마다 인턴 시절의 간절했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다잡습니다. 글로벌 일등항만의 글로벌 일등인재가 되기 위한 저의 두 번째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Q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

불과 일 년 전의 저는 혼하디혼한 취업준비생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던 저에게 정답이 되어주었던 것은 청년인턴 제도입니다. 부산항만공사라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고, 청년인턴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격려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보다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 확실한 방향을 잡고 꾸준히 걸어간다면 결국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ですよ. 목적지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에게 청년인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날을 상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모든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턴이란 경험이 준 선물

공무원연금공단 | 김○○



🔍 막연함 속에서의 선택

오랜 고시 준비 기간을 마치고 처음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막막함이 가장 컸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스펙은 거의 안보고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한다더라.”, “요새는 인턴, 공모전, 해외연수 경험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공기업은 NCS 공부 위주로 준비해야 한다.” 등등 당시 여러 가지로 변화의 물결을 거치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 각종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뉴스도 제대로 못 챙겨 보면서 고시 공부만 했던 저에겐 어떤 정보를 취하고 어떤 정보를 버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취직을 한 선배나 친구들과 얘기를 해도 “내가 취직할 때는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달랐어서 무슨 조언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따로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어찌다보니 합격했어.”와 같은 막막함을 가증시키는 말들뿐이었습니다.

따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긴 고시 준비 기간으로 나이는 나이대로 있으면서, 사회경험이라고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일을 했던 것이 전부였던 저로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시간에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NCS 공부를 하면서 무작정 여기저기 서류를 넣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알아보게 된 것이 여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인턴 제도였습니다.

Q 반대와 불안감과 함께 시작한 인턴 생활

처음 체험형 청년인턴에 지원했을 때는 주변 가족과 친구들이 나이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러한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자문하고는 하였지만, 직접 공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론으로만 배웠던 조직의 운영이 실제로는 어떠한지, 사무실의 분위기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어떤지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제가 청년인턴을 하려고 지원을 한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공무원 일을 하시는 분이 많다보니 친숙한 공기업이기도 하였고, 한창 이슈가 되고 있던 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공공기관 선택 자체는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인턴 채용과 관련해서는 필기는 그래도 전에 공부했던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맘 편히 준비할 수 있었지만 면접이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 입학 때, 아르바이트 지원 시에 봤던 면접과는 한층 다른 느낌이 들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나름 알아보기도 했지만 필기 발표일부터 면접일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들과 더불어 최근 뉴스들을 숙지하고, 스스로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와야겠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공고들을 보고 필기 공부를 하던 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날은 별 생각 없이 휴대폰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김○○ 지원자님 맞으시죠? 이번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청년 인턴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안이 병병해져서 이후에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쯤은 기쁘기도 했고 반쯤은 당혹스럽기도 한 상태로, 이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고 머지않아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움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던 3개월의 시간

사실 사전 정보 탐색 과정에서 “인턴은 회사 가서 복사하고 파쇄하는 게 전부라더라.”, “어차피 기간 지나면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방치해 둔다더라.” 등 정말 인턴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 싶은 얘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으로 배치된 용자사업실의 실장님께서 각 담당자 별로 일주일 씩 돌아가면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짜놓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들 본인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간단한 업무들을 해볼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한편, 취직이나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꿀팁들을 전수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민원 전화도 처음에는 제 자리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으로도 걱정부터 밀려올 정도로 겁을 먹기도 했지만, 주변 분들의 전화 응대 스킬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업무처리기준을 점점 더 숙지하다 보니 큰 문제없이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원 분들 중에서도 공단에서 인턴 경험을 하시고 나서 입사한 분들이 꽤 있어서, 저만 인턴 기간의 경험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한창 바쁘실 때에도 돌아가면서 한 분씩은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고, 시간을 내셔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유익한 경험이었고, 정직원이 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맡아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인턴에서 정규 직원으로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서류 합격률이 훨씬 높아져서 기쁘기도 했지만, 이미 인턴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라 다른 기관은 필기 및 면접 실전 연습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한 번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인턴 경험이 면접에서의 답변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준비 자체도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신입으로서 낯이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이지만, 청년 인턴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복지향상과 사회공헌을 돕기 위해, 제가 속한 용자사업실 외에도 다양한 사업부서와 운영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 수기를 읽으시는 분들도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해 한 번 고민해보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주변을 살핀다면, 생각보다 많은 배움거리들이 인턴 생활에 있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본인과 맞는 직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1 Build Your Own House!
- 2 다시, 「워킹맘」이 되다!
- 3 <나이 제한 없음>
- 4 편견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열려있는 채용 NCS
- 5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6 성별, 나이, 학벌! 어떤 것도 당신의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다

Build Your Own House!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



🔍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조금 많으시네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 첫 면접에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작아졌다.

나는 경력과 경험을 살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덧 30대를 넘어선 나이는 취업 문턱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있었다.

그렇게 우울한 날을 보내던 중 2017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블라인드채용, 직무 능력중심채용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마음,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그때 알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공기관 입사 수기를 작성한다.

🔍 스펙이 없다고?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더 중요해!

블라인드 채용은 한 마디로 해당 직무에 맞는 경험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볼 뿐이다. 그 이유는 학벌, 나이, 외모 등을 채용 평가 요건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나는 언론사에 다녔던 경험들로 인해 지원 서류를 여러 군데 쓸 수 있었다. 홍보, 기획, 경영 등 다양한 업무에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 발표 날, 내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지원한 서류 모두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왜 불합격했을까? 공공기관에 입사한 친구들과 서류전형에 합격한 스테디 팀원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관련 경력은 없지만 저만의 경험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합격 요인이었던 같아요.”

나는 스테디가 끝난 후, 그 자리에 남아 한참 동안을 생각했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맞아, 직무능력중심채용이 경력을 우대한다는 것은 아니야, 내가 착각했어.’

그 이후 나는 A4용지를 꺼내 대학 입학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을 적었다. 경험한 일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했으며 왜 하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작성했다. 그러자 나의 분야는 기획, 회계 두 가지 직무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직무능력중심채용 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직무능력중심채용은 단순히 지원자가 ‘나는 이런 업무를 해봤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경험을 적어야 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내 자기소개서에는 이전 회사에서 단순히 수행했던 경력 나열보다 그 외 직무와 연관된 나만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이 담겼다. 그리고 행정사무와 관련된 모든 직무에 지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회계 분야에 지원서를 넣었다. 이 결과, 서류 발표 날에 마음이 상하는 날보다 기뻐던 날들이 더 많아졌다.



직무기술서라는 설계도를 활용하자!

블라인드채용과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원하는 기관의 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내재화하여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맞는 직무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혹시 직무기술서에 해당하는 것이 난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원자가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무능력중심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잠재 능력, 그리고 열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만의 이야기(Story)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지역, 학벌, 나이 등이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땅 어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다.

터를 잡았다면 어떤 모양의 벽돌을 사용해서 어떻게 집을 지을지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옆 마을에서 네모 모양의 반듯한 집을 지었다고 해서 토양이 다른 이 땅에 같은 모양의 집을 짓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때 각 토양에 맞는 설계도가 '직무기술서'다. 집을 무수히 많이 지어본 사람도, 처음 집을 짓는 사람도 누구나 같은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을 뿐 누가 더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 집의 주인만이 알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토익시험 등을 공부하기보다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고 직무와 연관된 뉴스 기사 스크랩을 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종합격의 비결이 되었다.

분명 처음에는 나도 이 길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취득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척 불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과정을 믿고 직무기술서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집을 짓는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집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이다.

왜(WHY)? 라는 물음에 답을 찾는 과정

OO공공기관에 왜 들어가고 싶어? 이 질문이 바로 왜(WHY)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이 물음의 답은 최종합격의 가장 중요한 열쇠(Key)였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는 이유를 묻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연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지! 라고 말이다. 하지만 11번의 최종면접 탈락을 경험하면서 왜? 라는 질문에서 불합격의 원인을 찾아냈다.

왜 OO기관이어야 하는지, 왜 OO직무에 지원했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고가의 면접컨설팅도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지금부터 하면 늦진 않았을까? 계속되는 불합격에 몸과 정신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던 것이 그때였던 것 같다.

공공기관에 먼저 입사했던 친한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시간이 갈수록 수단을 목표로 삼게 되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나는 어느새 하루하루 문제집을 푸는 기계처럼 살고 있었다.

그리고 면접은 필기 합격 후에 준비하는 또 하나의 전형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은 달랐다. 서류-필기-면접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묶여 있었다. 면접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왜?라는 질문을 통해 '나'에 대한 발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12번째 최종면접을 준비할 때 이전과 달리 예상 질문과 답안을 만들지 않았다. 그동안 고민했던 왜? 라는 질문의 답을 정리해서 면접을 봤다. 블라인드 채용 면접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만의 직무능력을 어떻게 이 기관과 융합할지 고민하고 답을 찾은 지원자의 말에 면접관분들은 귀 기울였다. 그리고 나는 2019년 8월 2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입사했다.

Q 마치며

나는 약 1년이 넘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총 12번의 최종면접을 봤다. 이 과정 속에서 불합격과 합격에 울고 웃으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편견 없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면접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나이와 주소, 학교, 심지어 동아리 명도 밝히지 않게 하는 것도 다 그 이유에서다.

나의 진짜 모습.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속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해당기관 및 직무와 나를 어떻게 연결할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모든 지원자가 최종합격 문 앞에 다가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글을 읽는 취업 준비생분들이 자기만의 집을 완성하여 원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날이 오길 마음속 깊이 응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다시, 「워킹맘」이 되다!

신용보증기금 | 윤○○



1. 들어가며

작년 이맘때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시험공부와 면접 준비를 하며 동분서주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렇게 입사수기를 쓰는 영광을 얻게 되어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공고를 보고 털썩 공공기관 입사에 도전하였으나, 행여나 붙을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7년간의 직장 경력, 4살의 아이를 둔 워킹맘이었던 저는 육아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아이를 보살펴 줄 주변 도움의 부재가 겹치면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을 잠시 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동안만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좀 더 제공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약 2년여의 공백이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아이를 맡아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신용등급평가 및 기업컨설팅 업무를 해왔던 터라 경험을 살려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고, 지역여성인력개발센터에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입사 기회를 잡기란 녹록지 않았습다. 나이, 성별, 현재의 가정환경을 자세히 써야 하는 기존 이력서 지원 시스템으로는 저의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STEP1) 회사와 나를 알아가는 서류 과정

「나는 왜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지원했을까」

반면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 나이, 성별, 가족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질문 사항들을 보면 현재 회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과 비전·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자 했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자신의 역할과 능력, 중소기업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질문하였는데, 약술을 준비하면서 지원하려는 직무와 나의 적성,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많은 중소기업체를 방문하고 평가하면서 느꼈던 점,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신용보증기금에 꼭 입사하고 싶다는 바람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작정 입사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회사의 비전이 일치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과정이었습니다.

STEP2) 나의 열정을 쏟았던 이후의 전형과정

「‘희망’이 보인다」

저는 수많은 이력서 탈락과정을 경험해서인지 서류전형 합격 메일을 받고도 벅했습니다. 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세상이 아직 노력해 볼만하다는 희망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회의 소중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NCS평가, 통합 금융전공, 논술 등 필기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나면 하원 전까지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아이가 하원 하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아이가 잠들고 나서야 나머지 공부를 하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도 있었지만,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마음을

다잡으며 매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과목이 논술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및 금융, 사회의 최근 이슈를 나름대로 50가지 정도로 간추린 다음 해당 주제에 대해 목차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제 통계적 수치, 사례를 수집하였고, A4용지 2장 분량 정도로 주제별로 논술을 써보는 연습을 하며 준비하였습니다.

STEP3) 꿈을 이룬 면접 준비

「‘정말 될까’ vs. ‘아니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견해」

필기전형 합격은 돌이켜보면 최종 합격 발표보다도 더 기뻐던 순간이었습니다. 고사장 안에 있던 수많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았기에,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보고 떨리는 가슴을 누른 채 다음 전형인 면접을 애써 준비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면접 스테디를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스테디까지 할 수 없어서 남편과 모의 면접 연습을 했던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면접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면하기 때문에 서른 후반인 제가 어린 친구들과 함께 면접을 본다면 ‘과연 되겠어?’ 하는 마음이 컸던 점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제 자신에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넌 이미 꿈을 이룬 거야’ 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III. 입사 후

「항상 초심을 생각하며, 후배 워킹맘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합격자 명단 확인 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온 가족이 떠들썩하게 축하해주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벅찬 마음으로 연수원에서 신입연수를 받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일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현재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썼으나, 서류전형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많은 좌절을 겪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가 통과되고 공정한 평가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힘든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의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채용과정에서 느꼈던 투명함이 입사과정에서 계속 도전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블라인드라는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구직자는 회사에 신뢰를 갖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회사로서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저와 같은 워킹맘이 입사하여도 근무를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책임감과 초심을 간직하고 앞으로의 회사생활에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입사수기를 마칩니다.

〈나이 제한 없음〉

한전KPS | 강○○



🔍 정년퇴직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의 마지막 날 정년퇴직합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의 입사 수기라니, 어쩌면 수 십 년 전 아득한 시절의 입사 광경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근무기간으로 차장 혹은 부장의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신입사원의 때를 갓 벗은, 입사 4년 된 말단 평사원입니다. 입사 4년 만에 정년퇴직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으면서 씩스럽습니다.

5년 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발전 정비 협력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 지금 근무 중인 한전KPS의 직원 모집 공고에서 본 한 문장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장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이 제한 없음”. 이를 보는 순간 저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 자영업과 노무원

사회에서의 첫 직장을 IMF 외환위기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온 이후 수년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힘겹게 지내다 자영업-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설렁탕집을 운영하였는데, 밤낮없이 연중무휴로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

니다. 힘든 만큼 장사가 되는 듯하던 차에 그 유명했던 ‘광우병 사태’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메뉴를 바꾸고 지역을 옮겨 다시 시작했지만 몸은 상하고 마음은 피폐해지는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10여 년간의 자영업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완전히 길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의 집기 비품들을 모두 고물상에 넘기고 텅 빈 홀에 앉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베틀 신문을 뒤적이며 구인광고를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구인광고는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으며 50이 넘는 사람을 쓰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 제한 없음’이란 구인광고를 보았습니다. 제 나이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으로 찾아간 곳은 발전소의 정비 보조 노무원 자리였습니다. 기계와는 상관없는 일만 했었기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발전소 정비 보조 일용직 노무원이 되었습니다.

자영업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기간을 버티고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해도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하루 15-6시간을 일했으며 휴일이라곤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바람은 한 달에 단 하루 만이라도 쉬는 것이었는데 그 하루를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것이 몸에 밴 탓인지 발전소 일용직 노무원 생활은 몸과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쉬는 것이 꿈이었는데 한 달이 아닌 매주 이틀이나 쉰다는 것,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만 일하고 6시면 퇴근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의 직장같이 느껴졌고 일하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일용직이어도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발전소 노무원 일은 한 달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 행복한 비정규직

다행히 발전소는 여러 곳에 있었고 정기적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노무원을 모집했기에 몇 군데의 발전소 정비 보조 노무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을 하다 보니 처음에 어색했던 정비 보조 일도 나름 일의 요령이 생기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노무원 일을 하는 모습을 누군가 눈여겨보았는지 마침 발전정비 협력회사 비정규직에 결원이 생긴 곳에 제가 추천되었고 얼떨결에 일용직 노무원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어도 월급을 받는 일자리의 직원이 되었다는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발전정비 협력회사 직원이 되면서 기계 정비 일이 조금씩 숙련되었고 다른 발전소로 파견 근무도 하면서 발전소 정비 일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발전소의 계획예방 정비에 참여하면서 전문적인 기술도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에겐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오십 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근무하면서 남는 시간엔 틈틈이 공부도 했습니다. 거대한 발전기계 정비라는 것에 호기심과 애착이 생겨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계정비와 관련 있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

발전 정비 협력사의 비정규직 생활이 3년을 넘어서자 작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정비원으로서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50대 중반을 넘기고 있는 저의 나이를 생각하면 언감생심 터무니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정규직으로의 도전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욕망을 숨기고 다니던 어느 날 한전KPS 직원 모집공고를 보았습니다. 그 공고에서 지난번 벼룩신문 구인광고에서 보았던 문구, “나이 제한 없음”을 다시 보았을 때 정직원 도전의 욕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NCS 기반 채용은 학력, 나이, 스펙 등 외형적인 조건이 아닌 직무 능력의 적합성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이기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원서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동안 발전소에서 노무원 생활과 협력사에서 일하며 보고 겪고 체험한 것들을 간략하게 썼습니다. 간략하게 쓴다고 했지만 막상 쓰다 보니 할 말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서류 전형에 통과되었고 쑥스러워 몰래 공부하고 몰래 치른 필기 전형도 통과되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장롱 깊이 묻혀있던 양복을 입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서니 대기실엔 많은 젊은 지원자들이 말쑥한 양복을 입은 채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은

한 번에 다섯 명씩 들어갔는데 면접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가슴에 달고 있던 수험표를 떼고 즉석에서 추첨으로 뽑은 번호만 달고 들어갔습니다. 사진조차 없이 제가 누구인지 이름은 물론 나이와 학력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블라인드 면접이었습니다. 들어서며 얼핏 본 네 분의 면접관 앞엔 백지만 놓여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관은 제가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열심히 쓴 내용은 하나도 보지 못했고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뿐인 셈이었습니다. 면접관 앞에 앉았을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점은 면접관들이 저의 나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면접관들이 보시기에 신입사원치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지원자로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와 관련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직무에 관한 것이었고 회사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질문은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일하며 경험했던 발전 기계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의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참여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 전설의 바람

며칠 후 발표 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합격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주위에 한전KPS 신입사원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민망했습니다. 56세 신입사원이라니, 자랑스러움 보다 부끄러움과 쑥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는 또 어땠을까요. 거의 아들 뻔인 동기들과 한참 어린 동생뻔인 선배들 틈에서 곳곳이 연수를 마치고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10여 년간 가마솥에 소뼈를 삶아 설령탕 국물을 우려내던 사람이 발전소의 정식 정비원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유니폼을 입고 첫 출근한 날, 근무 전 아침체조를 함께하는 그 순간 울컥하는 심정으로 콧날이 찡했던 기억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 정비의 기라성 같은 직원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리 부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선 나이 많은 신입사원이 아마도 조금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이 따지지 않고 따듯하게 일원으로 맞이해준 동료들이 고마웠습니다. 근무를 하는 내내 저에겐 4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편견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열려있는 채용 NCS

재외동포재단 | 000



들어가며

내 나이 33세.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통념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에는 늦은 나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으로 도전한 이유는 일반 회사에서 가 열차게 일하면서 연차도 쌓였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직장과 방향성을 꾸준히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다행히 입사한지 4개월이 지나 느낀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근무하며 재외에 있는 750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기에 가슴이 뛰고 보람차기에 나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전 회사에서 쌓아온 직무능력을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직무중심의 NCS 기반 채용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와 같은 상황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합격수기가 되었으면 한다.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기회, 도전을 두려워 말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은 나였지만 처음 도전한 공공기관 입사에 있어 나이와 이직횟수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

서 NCS의 블라인드채용은 내게 있어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게 했다. 최근 취업준비생들은 대학 재학 때부터 토익 990점, 많은 자격증과 2개 국어는 기본일 정도로 열심히 준비한다. 실제로 입사한 동기 중에는 토익 만점자를 비롯 3개국어 가능자, 나와 나이가 8살 차이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친구까지 있다. 이들과 신상정보 등 모든 것을 오픈하고 경쟁하는 서류전형에서 만났다면 낙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외교부에서 근무 중인 형이 재외동포재단을 추천하면서 블라인드전형이기에 너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지원서 작성을 시작했을 때 일반 지원서와는 달리 NCS 기반 지원서는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정성적인 경험과, 경력 관련 직무의 이수여부 등 직무적합성이 중심이 된 문항들이 다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다.



서류전형 - 경험이라는 최고의 스펙으로 승부하다

세 식구의 가장으로 재직 중에 입사를 준비해야했기에 영어점수마저 필요점수에 턱걸이 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직무중심의 지원서의 문항들이 다수 있었기에 유일한 스펙인 직무경험을 강조하고자 했다. 사족으로 나의 직무는 경영지원부 안에서도 '회계'이다. 나이가 많은 대신 회계라는 공공기관의 특수직 업무를 사기업 현장에서 수행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다. 학부를 졸업한 후 바로 지원한 지원자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내가 생각하는 블라인드전형의 취지는 스펙 중심의 서류전형의 유리천장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2단계의 면접 과정에서 노련한 면접관분들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합격자가 선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서는 추후 면접질문의 기반이 될 자료이기에 이력서를 진술하고 꼼꼼하게 작성했다. 퇴근 후 새벽까지 공을 들였으며 이 직무에 대한 얼마나 적합한 인재이며 왜 재외동포재단에 지원했고 근무해야하는지 간절함을 담았다.

🔍 필기전형: 솔직하게 나를 보여주는 시간

NCS기반 전형의 특징상 서류는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기에 다행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지만 NCS의 백미인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적성검사)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따로 준비한 적이 없었지만 원리를 알면 어떠한 유형이 나와도 침착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했기 2권의 문제집을 사서 반복해서 풀었다. 사실 인적성이 더 걱정되었다. 수백 개의 물음에 일관성이 있는 응답을 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으며 아무리 완벽하게 응답해도 재외동포재단의 인재상과 상이하면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필기시험을 본 덕분인지 면접전형까지 갈 수 있었다.

🔍 면접전형 - 직무 경험의 엑기스를 보여줄 시간

재외동포재단의 1차 면접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면접 전 PT발표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청중 앞에서의 발표는 일을 하면서 자주 했었기에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다행히 내용에 대한 꼬리질문은 없었고 이후 본격적인 직무관련, 조직생활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는데 차분하고 진솔하게 대답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회계 직무를 수행 할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NCS 기반 면접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였다. 1차 면접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압박보다는 직무능력뿐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의 자세까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솔하고 침착하게 면접을 본 결과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다. 최종 면접에서는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과 더불어 업무관련 질문도 섞여 있었다. 업무관련 질문은 직무경험 덕분에 비교적 쉽게 답할 수 있었고 실제로 좋은 대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지는 자리이기에 긴장을 많이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운이 좋게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다. NCS 기반의 면접전형을 본 소회는 기존의 면접들과는 달리 직무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에 압박이라기보다는 지원자가 얼마나 직무와 회사에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자신을 보여주고 준비한 만큼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면접전형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경험들이 모두 다 공개가 되는 과정이었다. 면접에서는 토익만점 혹은 훌륭한 자격증이 있어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모두가 가는 길보다는 자신만의 길의 방향을 정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글을 마치며

29세에 첫 직장에 입사하고 3번의 이직이라는 시행착오 끝에 33세에 공공기관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 안주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재외동포재단이라는 훌륭한 공공기관에 입사할 기반이 된 것 같다. 주변사람들은 늘 내게 “이직 자주하면 나중에 재취업 힘들거야”라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진정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았고 사회의 획일화된 스펙을 가지려 노력하기보다는 나만의 것을 찾으려고 회계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시스템개발, 물류창고이전 등의 다양한 업무도 먼저 나서서 도맡아했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은 채용절차에서의 도움뿐만 아니라 현재 재단에서도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다. 최근 대학 졸업반인 사촌동생이 공기업 입사준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책상에 앉아서 얻을 수 있는 서류상의 토익점수보다 원하는 회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행해라. 그게 진정한 스펙이 될 것이다”라고...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에 입사하고자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같은 스펙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원했다면 직무중심 블라인드채용 시스템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진정 자신이 기업에서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경험 등의 진정한 스펙을 쌓는다면 나같이 33세에도 유리천장을 깨는 신입직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재단에서의 미래를 꿈꾸며 글을 쓰고 있다. 합격수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원하는 회사에서의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회는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 박○○



취직을 준비하기 전까지 ‘블라인드 채용’과 ‘직무능력중심채용’이라는 것을 잘 몰랐고, 그저 채용방법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기업과 공기업에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 블라인드채용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 첫 취업준비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4학년 1학기에는 영어점수 말고 ‘그럴듯한’ 스펙이 없었습니다. 각종 취업사이트, 취업관련 학원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합격스펙과 합격 후기를 읽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알면 알수록 부족한 저의 스펙이 걱정되었고, 학벌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4학년까지 제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학점과 영어성적이었는데, 그마저도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뒤로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곳에서 서류탈락 하였습니다. 시험 볼 기회가 있었던 곳은 서류전형에서 적격자 전원합격 하는 곳 뿐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지원한 사기업은 다 탈락하였고, 여러 공기업은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저의 1년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 희망이자 기회였던 블라인드채용

하반기 취업시장에 공기업과 사기업에 모두 원서를 쓰면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기업은 사진, 나이, 학교, 학점 등 많은 항목을 적어야했습니다. 어떤 곳은 부모님의 직업까지 적어야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공기업은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직무관련 사항만 적을 수 있었고, 입사 원서를 쓰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사기업만큼 ‘스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며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구직하는 시점에서 좋은 자격증 하나 없고, 명문 대학도 아니며, 대외 활동 같은 특별한 ‘스펙’도 없는 저에게 블라인드채용은 기회이자 희망이었습니다.

4학년 2학기, 하반기 채용을 경험하고 나서 공공기관에 입사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고, 가고 싶은 기업을 몇 군데 정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직무기술서가 상세히 나와 있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제가 채용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 경험과 직무능력을 연결 짓다

제가 가진 역량과 그때까지 쌓아온 직무관련 경험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보았습니다. 화학계열 전공자였고, 대학교 3,4학년 동안 실험실에서 있으면서 석탄회와 관련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졸업논문을 작성해야 졸업할 수 있었기에 화력발전, 에너지 산업에 대한 논문을 자주 읽었습니다. 발전사의 직무기술서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저의 강점으로 삼아 입사원서를 작성하였고,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과 대외활동이 없어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입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사는 서류 전형에서 많은 배수 인원을 거르거나 적격자 전원을 합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스펙이 없더라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전공과 NCS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채용 프로세스가 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학벌과 스펙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저에게는 희망이었고, 자신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화공기사를 준비하는데 이해가 안돼서 처음 한 달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공부했습니다.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입사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랬기에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한 결과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문제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공기사 기출문제 10개년을 10회독 이상 공부하였고, 그 결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능력중심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합격이 외부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블라인드채용과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나아갈 길은, 국민들에게 얻은 신뢰를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의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더 바른 블라인드 채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나아갈 길은, 취업준비생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직무 기술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업의 직무 기술서를 읽어보았는데,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회사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가 좀 더 기업 현장과 유사하게 현실적으로 작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기술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하기가 수월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걱정 반 자신감 반으로 시작했던 취업준비가 끝나고 지금 입사수기를 작성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블라인드채용과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통해 결국 해냈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a chance, you can do anything!

성별, 나이, 학벌! 어떤 것도 당신의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서부발전 | 김○○



🔍 32살, 여성, 년 힘들 거야

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했던 저는 취업준비를 하는 친구들과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대 후반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샐러드 가게 설거지 보조업무, 보험사 영업, 콜센터 단기근무, 맥주가게 서빙, 중고생 전문 학원 선생님 업무 등 여러 알바를 하면서 알바몬이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한 터라 같이 취업을 준비하며 정보를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았고 커뮤니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만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전형에 맞추어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알바로 용돈을 모으고 저녁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주말에는 취업준비를 하는 친구들과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마다 이메일로 날아오는 채용 전형 결과의 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귀하의 능력은 출중하나 한정된 인원만 뽑을 수 있는 관계로 금번 채용에 모시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다면 당연지사 채용이 되어야 맞을텐데 연거푸 들려오는 탈락 소식에 마음이 급해진 저는 관심 밖의 업무라도 일단 채용 원서부터 접수하기 시작했습

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채용의 문턱에서 가장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뽑아주는 곳은 어디든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취업의 문을 두드린 결과 취업에 성공하였고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였지만 합격의 즐거움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저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 하였습니다. 무작정 썼던 원서 타인지 관심도 경험도 없는 직무를 맡으면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저는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다시 알바몬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스펙이란 것 없이 제 나이는 벌써 30대를 향해 가고 있었고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고 또 다른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채용 공고를 찾아보던 중 공공기관에서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하물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는 글을 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30대 여성 무스펙. 뽑히면 내가 성을 간다!’

400:1 직무능력중심(NCS) 채용 시스템에 도전!

채용 공고문에는 ‘학력, 나이, 성별 무관.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으로 공정하게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지만 계속되는 취업실패 속에 거짓말 같은 글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직무능력 중심 채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면 채용 한다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 어렵게 들리지만 직무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준비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간단한 공식에 저는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생각하게 된 직무 방향은 제 전공을 살린 화학공학 및 화학분야 NCS기반 채용 직무였습니다. 화학물질 분석, 설비 운영 및 환경 관리 등의 업무는 대학생 시절 공부했던 분야이기에 기초만 다지면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질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무 목표를 세우고 화학분석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화공기사 등 직무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론적으로 탄탄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전형의 1차 관문인 전공지식 테스트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감도 잠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인 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고 2명 채용에 800명이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00:1 이정도 경쟁률이면 전교 1등인데. 오직 내 실력으로만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쫓지 말고 도전!’



화학물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로 직무능력 Up

직무 능력의 전문 지식은 각종 스터디 모임과 자격증 준비 등으로 채워나갔지만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학부시절 실험실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직무 관련 업무가 전부였기에 부족한 경험을 채워야 하는 고민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때 환경공단 이 주최하는 화학물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인력모집 공고문을 보았고 자신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몰려서 면접을 통해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이 직접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필요 지식 습득 유무, 화학물질 유위해성 관련 경험 유무 등을 자세히 질문하였습니다. 학부 때 관련 경험을 토대로 성실히 답하였고 이로써 좋은 결과로 프로그램에 합격하였습니다. 일종의 인턴십과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교육비 지원 혜택도 있어서 직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알바몬 생활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화학물질 위험성 분석, 행정업무, P&ID 보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NCS기반 채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습득했고 화학물질과 공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춰 취업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성을 더하다

각종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탄탄히 다진 전공 기초 실력에 직무 관련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취업에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나날이 높아지는 경쟁률을 바라보며 채용의 문 앞에서는 늘 떨리기만 했습니다. 전공 기초 실력을 믿었지만 몇 번의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자신감을 잃고 있던 찰나에 400:1의 믿기지 않는 경쟁률을 뚫고 전공지식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됐다. 믿어보자. NCS기반이라는 채용전형!’

그리고 이어지는 면접과정에서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알 수 없는 진짜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해결 능력과 조직 생활 능력을 판단하는 단체 면접에서 이름은 수험번호로 불리었고 수험생들은 각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면접관들에게 수험생들의 어떠한 사전정보도 주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 풀이하는 과정만을 지켜보며 판단하는 면접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했고 객관적이었습니다. 단체 면접에서는 발휘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수험생 각자에게 개인 면접을 통해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채용 분야를 정하여 직무 기초 지식을 익히고 관련 분야 경험을 쌓았던 준비 과정을 면접을 통해 보여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NCS기반 채용에 따른 업무 습득을 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고 면접관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직무능력을 후회 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최종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세우고 준비했던 직무 방향과 적절하게 발전소 화학분야로 취업에 성공하여 입사 후 화학물질 분석, 발전 환경설비 운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나도 도전해도 될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 의문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거쳐 온 채용과정 중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이 생각보다 많이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처음 준비하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합격 수기와 선배들의 채용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박람회 등을 대학교 및 컨퍼런스 통해 활성화하여 이러한 소식이 구직자들의 귀에 더 가까워서 들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합격 소식. 이제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별, 나이, 학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꼬리표가 되지 않는다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준비하는 누구든 공정한 기회 속에 취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믿고 당장 도전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Ⅲ

고졸 채용



- 1 대졸 취업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편견은 No No No!
- 2 인생의 이정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 3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4 나를 Pick Me! Pick Me!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나를 갈고 닦는다!
- 5 나의 꿈과 미래는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원동력
- 6 성공의 등지

대졸 취업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편견은 No No No!

한국수력원자력 | 정○○



🔍 “고졸 취업은 탁월한 선택이다.”

고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고졸 취업은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고졸취업 7년차, 제 이야기가 후배 분들의 미래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졸 취업을 선택하기까지

중학생시절 저는 공부에 욕심이 많아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학을 두고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생겼고, 결국 대학비용에 대한 부담과 빠른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마이스터고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좋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졸 취업을 선택한 사람도 적잖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 선택하지 못한 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하고보니 전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대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선취업 후진학'만의 장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Q 선진학으로는 가질 수 없는 '선취업 후진학'의 매력!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닌다니 “피곤해서 공부가 되겠어?” 등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일반 대학생보다 조금 더 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단점을 상쇄할 '선취업 후진학'만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미래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 후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 경력을 쌓아나갈지 커리어 맵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지 불투명한 대학생과는 달리 이미 회사에 취직하였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과에 진학하여 무엇을 배워야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목적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입사하여 몇 년 근무하다 올해 울산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영학과 야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배우고 싶은 내용보다 취업이 용이한 과를 선택하여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기졸업을 목표로 학점 4점대 유지 및 학점을 꼭 채워 수업을 듣고 있지만, 조기졸업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시험에 연연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고 싶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점도 '선취업 후진학'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Q '선취업 후진학' 실제로 해보니 어때?

저는 대학생활을 통해 높은 통찰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길 바라였고 1년 남짓 다닌 지금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평소 관심 있는 분야만 편향되게 지식이 늘어나기 십상인데, 대학교에서 정해진 각종 교양수업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전공 수

업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더 높은 이해도를 갖게 되었고, 회사 입장에서 좋아할 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대학 수업을 들을 때도 막연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회사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 좀 더 열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셀프리더십을 가지게 된 점입니다. 하는 일과 공부에 대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었고 자기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아침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은 단순히 취업의 수단이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에 고졸 취업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더라도 꼭 학업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추진하기에 학업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쓰는 것에 눈치를 보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취업 후진학'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야간대학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인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학교 MOU 협약을 통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도 할 정도로 지원이 적극적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수원의 경우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부산대 '발전공학과' 등의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기술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고졸 직원들에게 배움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계약학과인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선취업 후진학'의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경험이 대학 진학에 아쉬움이 남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으려면 여러 회사를 경험해보아야만 하나요?”

구직을 앞둔 고졸 취업자 분들에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입사지원서를 넣으면서도 업무가 나에게 맞지 않을까봐 걱정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직활동 중에는 어디든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꿈을 버리

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으니,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업무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야하고,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경험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졸자에 비해 여러 기업을 경험해 볼 기회가 적으니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용공고의 직무설명서 정독과 ‘알리오’ 사이트 활용이 그 방법입니다.

알리오(www.alio.go.kr)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각종 정보들을 민간에게 공개하는 사이트로 회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직제규정’에서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회사 업무와 나와의 적합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소서,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회사에 대한 나의 애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내가 이리려고 회사에 왔나?’, 사회 초년생의 잘못된 생각

처음 입사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했는데 부서에 배치 받고 보니 서류정리, 복사, 스캔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혼자 별로 일이 없어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리려고 회사에 왔나?’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고졸 직원이라 간단한 일만 맡거나 싶은 피해의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돌이켜보면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팀 분위기와 팀원의 업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적응한 후 선배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지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선배들의 배려이며 고졸, 대졸 구분 없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신입직원이 회사에서 1인분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5년~7년 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사 초기에 허드렛일을 하거나 맡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고졸 취업' 문화 형성을 위한 한 가지 약속

고졸 취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활성화 된 것은 불과 9년 전 일입니다. 아직 회사 내 고졸 취업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서 취업한 고졸 선배들이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여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면 대학 과정을 거친 직원에 비해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뒤이어 들어올 후배분들이 차별 어린 시선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고졸 취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취업 후 '4년 이상'은 능력개발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커다란 로마제국도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한 대기만성형 인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인생의 이정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최○○



🔍 뚜렷한 목표와 뜨거운 열정

“우리가 너 때문에 강남 왔는데 왜 공고를 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중3 때 S공업고등학교를 간다고 선언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 주변에는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없었다. 그것이 영향이었을까? 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중학생 때부터 내가 제일 잘하고 흥미 있는 것을 먼저 찾았다. 그것은 바로 과학 중에서도 전기였다. 전기를 공부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고, 성적도 좋게 나왔기에 미래에도 전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한국전력과 발전 6사 공기업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마이스터고라는 취업에 특화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 공고 진학은 나에게서 모험이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물론 중학교 때 성적이 나빠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위권이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공고 진학을 만류했다.

부모님을 계속 설득한 결과 나는 입학 할 수 있었고 내가 결정한 선택에 대해 부끄럽지 않으려고 2학년 말까지 전교생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내신, 수능, 자격증 및 어학 등)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전공(전기)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다행히 3학년 때 전년도에는 채용계획이 없었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갑자기 채용공고가 떴는데, 미리 준비해 둔 덕에 내가 목표로 하는 전력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한 자랑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졸 구직자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현재 고졸 채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무 곳이나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오는 채용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장에는 취업이 될지는 몰라도 한 번의 취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에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내 주변에는 그러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좋은 곳에 취업했어도 본인과 맞지 않는 일을 하기 싫어서 다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물론 젊기 때문에 퇴직하고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다시 공부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쏟지 않으면 이를 수 없으므로 효율적 선택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너무 좁은 범위로 어떠한 하나의 회사만을 목표로 한정하지 말자. 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목표를 지정했다.

첫째, 내가 어떠한 분야에 뛰어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한다.

둘째,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업체 중 내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회사를 타겟으로 삼는다.

타겟으로 삼은 회사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취업은 시간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너무 조급하면 되려던 것들도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여 목표로 하는 회사에 꼭 취직하기를 바란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 전에 무조건 취직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래도 늦지 않는다. 최대한 많은 플랜B를 수립해 놓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정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마지막에는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움을 회피하려고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야와 직무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더라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다.

인생은 장기전이다. 집을 건설할 때 올바른 설계를 기반으로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취업이라는 건물을 올리기 전에 “목표”라는 “올바른 설계”와 “열정”이라는 “튼튼한 기초공사”가 선행되어 있는지 점검하기를 바란다.

왕복 130km의 출퇴근

나는 입사하고 나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거나,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 내가 어떠한 학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나의 행실과 일의 결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 처음에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운 지식만으로도 업무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 하고만 어울리다 보니, 나에게 또래 친구들이 없어 우울했던 적이 있었다. 마침 서울 소재의 H대학교에서 야간학부로 개설된 응용시스템학과에 원서접수가 있었다. 그때 당시 난 청평양수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장과 학교 간 거리가 차량으로 왕복 130km인 데다가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3번, 토요일에는 전일 수업(아침 9시 ~ 저녁 6시)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많이 고민했다. 고등학교 때의 전공(전기)과도 달라서 막상 진학하려고 하니 두려웠다.

전공에 관한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 딱히 대학 생각이 없던 차에, 현장의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7년 선배 팀장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기회가 있을 때,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대학은 가는 것이 좋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뭔가를 배우면 다 쓰일 곳이 있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 꼭 대학에 가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해. 네 여러 선배도 그렇게 학위 따고 자격증 따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거야. 미리 준비해라.”

듣고 보니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 수시로 원서접수를 하고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 해부터 4년간 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먼저 평일 5일 중 3일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1시간 일찍 오후 5시에 퇴근해야 했다.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6시 30분. 제일 먼저 주먹밥을 사러 가서 저녁으로 때우면 오후 7시에 수업이 시작하게 된다. 차가 막히면 그날 저녁은 먹지 못했다. 그 후로 3시간 동안 수업을 들은 후에 청평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정이 됐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소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래도 난 모든 영역에서 잘하고 싶었기에 그 무엇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초반에는 성적이 잘 나왔다. 하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게 되고 몸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다. 급기야 업무 중에 졸거나, 업무가 집중되지 않는 날의 빈도가 늘게 되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내가 너무 완벽히 하려고 하는구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일과 학업의 조화를 맞추기로 했다.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학업량을 조절하니 학우 관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어 회사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끈끈한 우정도 쌓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기술경영에 관한 것들을 배웠는데 2학년 도중에 품질부서로 발령을 받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었고, 또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어서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는 학사 과정을 마치고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에 내려와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한 층 전문적인 업무를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간 배웠던 것들이 마치 작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고, 그 성취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끈 것 같다.

나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여러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융·복합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공부 중이다.



이것을 바란다

이 고졸 채용 정책이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 앞으로 학력만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졸 채용 인력들이 참신함과 열정을 비추고 있다. 이들의 도전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도전

도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내가 길을 만들면 그 과정이 매우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길에서는 내가 독보적일 수 있고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다. 항상 젊은 패기로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이○○


 Prologue

고등학교 2학년 국어시간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낭송했다. 당시에 나의 힘든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취업이라는 꽃이 피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 루이 파스퇴르

중학생 때부터 일찍 사회에 나가 나의 재능을 사회에서 발휘하고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꿈이 있었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꾸준히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기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고 공공기관에 입사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고교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 취업부장 선생님께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을 볼 때마다 하셨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다. 매일 7시 50분에 등교하여 학습준비를 했다. 아침 시간엔 주로 경제신문을 읽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학습시간엔 교과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방과 후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야간자율학습시간엔 10시까지 내신 공부를 했다. 집에 와서는 가방을 놓고 독서실에 가서 문을 닫는 2시까지 내신이나 자격증 공부를 했다.

그리고 2시 반쯤 잠들어 6시 반까지 4시간을 자고 일어났다. 성실한 고교 생활을 한 결과, 내신 상위 4%, 자격증 12개 취득, 교내 상 20여 개 수상을 할 수 있었다. 성실함이야말로 사회생활에 있어 최고의 무기 아닐까? 덕분에 다양한 증표를 만들며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었다. 공부를 한 결과 나는 금융을 좋아하고 회계를 잘 하였다.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에 매력을 느껴 은행 텔러,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5개를 취득하였다. 꼼꼼한 성격은 회계 공부에서 나타났다. 모든 회계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고 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교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나의 꿈이 회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구체화되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각이 잡힌 후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생활에 있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 미리 연습을 하고 싶었다. 교내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부단장을 맡아 동아리 부원들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동아리 원들과 다양한 친목행사를 만들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생각하여 말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고 조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발표하였다.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뿌듯한 활동이었다.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이 희미하게 생겼다. 꿈을 위한 준비를 위해 내 시간을 쏟고 있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예산/회계분야 고졸 채용 공고가 나왔다. 공고를 보자마자 이 자리는 나를 위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최선을 다해 입사 준비를 했다. 자기소개서, 필기 시험, 토론면접, 임원진 면접 모두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다. 나의 정성과 노력을 면접관들이 알아봐 준 것일까 나는 전국 1명 채용 자리에 합격할 수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졸업 예정인 고졸 구직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을 요약하면 첫째,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꿈을 찾으라는 것이다. 도전을 해본 것 중 자신의 적성에 잘 맞지 않은 활동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전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 또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많은 도전 끝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전 끝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것이다. 면접관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해라. 셋째, 혹여나 취업 과정 중 불합격을 겪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라. 꿈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더욱더 준비에 박차를 가해라.

2. 성공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성취될 때이다 - 빌 게이츠

2018년 6월 29일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오기 전, 채용형 청년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 나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발령이 났다. 센터로 가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하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때 전산회계 1, 2급 자격을 공부하며 배웠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회계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업무 시 엑셀과 한글을 자주 다룬다. 컴퓨터 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와서 크게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다. 회사 선배들께서 엑셀을 잘한다고 칭찬해줘서 뿌듯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은행에 방문해서 업무를 본다. 은행 텔러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따놓고 학교에서 청구업무 관련 공부를 해서 은행 방문 전 준비를 수월하게 해 업무처리를 물 흐르듯 할 수 있었다. 또한 회사 선배님들이 모르는 금융 관련 질문을 와서 나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답변해주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써먹을 수 있어 뿌듯했다. 5개월간 청년인턴을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서 기록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과정 중 하나인 연구과제 발표 때 발표했다. 회사의 예산/회계 체계를 도식화하고 회계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신입 직원에게 지출결의서 작성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나의 노력의 평가가 합산돼 11월 28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다. 정규직이란 큰 선물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로 와서 벅찼다.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을 했다. 회사를 다니며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현실에 적용하여 하는 업무도 있지만 깨우치며 배워야 하는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 끝나고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찾아서 들었다. 기획재정부의 E재정배움 사이트에서 예산의 기초, 국가재정법의 이해, 국고보조금의 이해 강의를 들으며 이론을 배우고 업무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다. 센터 내 예산관리를 담당하여 재정운영 성과와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회계 담당으로서 국가재정법을 해석하며 회계문서를 검토하고 지

출원·지출관으로서 E나라도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찾아서 출장을 가 직접 배워와 실무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급여 담당으로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받고 18년도 센터 연말정산을 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직원들의 궁금증을 답변해 줄 수 있었다. 또한 19년도 연말정산 및 개정 세법 교육을 듣고 세무 업무를 바르게 처리했다. 국가 회계 재정통계센터에서 하는 국가 회계이론·실무 교육을 들으며 기업회계와 국가 회계의 차이점을 배웠다. 감사교육원에서 공공기관 회계실무자 회계감사 교육을 들으며 감사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배웠다. 예산/회계/세무/급여 관리의 담당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회사의 돈을 관리하며 경제학과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 추후에 업무에 완전히 적응이 된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내 꿈이 자금 관리 전문가로 깊어졌다. 나의 자아실현이 이 회사에서 배우고 업무를 하며 이루어졌다.



3. 당신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것에 충실하라 - 프리드리히 실러

19살부터 입사해 근무하여 회사 선배님들께선 대단하다고 격려해주신 좋은 선배들이 많았다. 하지만 고졸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다. 그렇기에 대학에 대한 동경도 생기고 자격지심 때문에 우울했던 날들도 있었다. 근본을 해결하려면 무시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 대 사람, 담당자 대 담당자로서 존중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제안하자면 첫째, 고졸도 대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나 방송을 만들어 차별 인식을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둘째, 국가적 워자리에 고졸자 의무 고용비율을 두어 고졸자도 워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셋째, 고졸 근로자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대학에 가기 힘든 근무환경에서 근로하는 고졸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면 좋겠다. 고등학교 시절 꿈꾸던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대학 공부를 하는 나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나와 같은 고졸 근로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올해 4월 봄 벚꽃이 만개할 때, 사회 공헌을 하였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활동과 사회에서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취업이라는 꽃이 피었고 나는 매일 감사해 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고졸 취업 준비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또 많은 고졸 근로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 국가에서도 고졸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글을 마친다.

나를 Pick Me! Pick Me!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나를 갈고 닦는다!

한국임업진흥원 | 정○○



[경] 정○○ '한국임업진흥원' 취업을 축하합니다. [축]

취업 후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셨던 부모님께서 학교 교문 앞 현수막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실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나를 기다려주신 부모님도 나만큼 힘들어 하시고 계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취업이 늦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2학기 중에 취업이 결정났지만 나는 계속 취업에 실패하면서 “아 이대로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졸업장을 받고 3년의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하던 중학교 3학년 초만 해도 나는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부는 학생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면서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처럼 공부하고 대학가고 취업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TV와 인터넷에서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 기사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도되었고 ‘최대 실업률’, ‘3포 세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이젠 '최대'라는 말이 무의미해질 정도가 될 때 과연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저 취업시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특성화고등학교 홍보 브로슈어를 보게 되었고 다양한 금융권과 공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의 사례를 보며 '충주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학교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왜 그 성적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느냐며 걱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만해도 상업고등학교는 공부와는 거리가 먼 친구들이나 가정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고자 입학하는 수준 낮은 학교라는 인식에 고졸로 취업하면 갖은 차별이 절 괴롭힐 거라며 걱정의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생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중학교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저는 3년 장학금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방과 후 수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높은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취업을 지원해주는 학교의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통해 학원을 다녀야만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을 학교의 방과 후 수업시간을 통해 취득하고 한국사능력검정 1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등 20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후 NCS) 강의를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무료로 7회씩 총 4번의 이론과 면접 강의를 무료로 학교에서 수강하면서 저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며 취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취업 실패의 경험

하지만 저에게 취업은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3학년 동안 10군데도 넘는 곳에서 서류를 넣었지만 시험과 면접을 보면서 떨어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최종면접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좌절을 겪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여 이미 현장에 나간 친구들의 빈자리를 볼 때면 나는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하루에 10번 이상씩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저

를 보시면 “성적도 상위권이고 자격증도 20개가 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취업을 못했을까? 선생님은 항상 네가 걱정이야”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종합격한 대학교 합격증을 보며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준비해온 노력들을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지 않고 1년만 더 취업에 도전하자’라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의 고시원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오전에는 7시부터 영어 학원을 오후에는 8시까지 NCS 문제집을 하루에 한권씩 풀어나갔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듯이 이런 노력 덕분인지 4월에 취업 공고가 올라온 ‘한국임업진흥원’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면접에 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면접 전날 너무 떨리는 마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 면접 강의를 봐주셔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던 선생님께 문자로 저의 떨리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단점을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셨기에 저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금융권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기에 뛰어난 말재주가 가산점이 되지만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지원자에게는 너의 청렴과 성실함을 꾸밈없이 전달하는 게 면접의 포인트야. 그러니 말을 더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전달해드리렴”이라고 답장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면접 때 말을 더듬는 실수를 하였지만 선생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 떠는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고등학교 3년 동안 취업을 위해 길러왔던 나의 역량과 의지를 표현한 결과 최종합격의 결과를 서울에 올라 온지 한 달 반 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넓어진 고졸채용의 기회

모두가 고민하듯이 고졸채용은 학벌에서 경쟁력으로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또한 알고 있고 전문분야에서 공부하고 노력한 것은 따라 갈수 없겠지만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회계라는 분야에서는 내 스스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한 ‘한국임업진흥원’은 면접장을 들어가기 전까지 면접 심사위원분들은 나의 자기소개서와 필수 자격증 몇 개를 제외한 나이, 성별, 학벌 그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말을 합격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고졸 취업의 기회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고졸취업의 길은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과 미래는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원동력

한국수력원자력 | 강○○



한국수력원자력 합격 통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뻐하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격려도 지금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와, 신입사원 교육 후 첫 출근하던 때 우황청심환을 마시고 갔던 것이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장을 사고 입었던 것도 입사 준비와 출근할 때 처음 해보았지요.

“○○ 씨는 몇 살이에요?”, “저는 1994년생 19살입니다. 반갑습니다!”

🔍 선생님의 조언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문득 저를 부르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치셨지요. “○○아, 너는 성적도 20%안에 들 정도로 좋고, 기술/가정 과목에도 관심이 많은 똑똑한 아이야. 다만, 너의 가정상황을 알게 되고 고민을 많이 했단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라는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단다. 그 곳으로 진학하는 건 어떤지 생각해보지 않을래?” 막연히 항상 집 근처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게 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새로운 정보였고, 진로였습

니다. 이후 해당 학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공과 분야 인재 배출의 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저 ‘부산기계공고’ 가려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히도 해당 학교는 아버지께서도 잘 알고 계신 학교였고, “정말 좋은 학교란다. 응원하마! 과는 정했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3개의 과가 있었고 전자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기에 “저 전자과로 진학하려고요.”라고 대답하며 저의 새로운 진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내가 결정한 목표이기에 열심히 해보자!

고등학교에 진학 한 후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간들 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내신 성적이 가장 좋은 아이로 평가받았었고,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상장도 10개 정도 받았었지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되며 다시 한 번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류, 시험,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공개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정상황으로 신문배달을 하며 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다짐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길이라고.’

🔍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곳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막상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공개채용에 지원하려고 하니, 먼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원자력, 수력, 양수 발전을 총괄하는 회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기계분야에도 적성이 맞았고, 원자력 발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미세먼지도 가장 적게 발생되고, 자연 훼손도 가장 적은 발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한 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를 정하면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성격이기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서류 전형에 통과 후, 1차 인적성검사 시험을 위해 문제집이 너털너털해지도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차 면접, 면접관님께서 원자력 발전의 이로운 점과 발전원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관심 있게 조사했었던 것이었기에 막힘없이 말씀드렸고, 자기소개도 면접관님께서 인상 깊게 들으셨는지 “회사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마음속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홈페이지에서 합격과 건강검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의 시작점에서

합격하고 나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에서 문득 이 회사에 45년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늘 그래왔듯이 또 한 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훈련센터에서 1등을 하여 교육우등상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된 역사를 가진 고리1,2호기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계 팀에서 공기조화설비시스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학지식만으로는 업무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선배님들께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물어보시며, 잘 알려주셔서 군대 가기 전 까지 고리1,2호기 Grand Overhall(대규모 계획예방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Q 많이 오진 않았지만 시원한 물 한 모금

사실 입대를 할 때 약간 기뻐했습니다. 힘든 업무를 마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던 제게 군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을 하며, 선임/동기/후임과 어울리며 21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 중에는 회사의 팀 선배님들이 불러주셔서 함께 회식을 한 것도 많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기다려준 회사와 선배님들께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Q 성숙해진 달리기를 위해

다시 회사에 와 보니, 원자력 발전에 이전부터 많이 제기돼왔던 ‘안전’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대학교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송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산대학교 야간 과정’이 있었지만, 조금 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었던 저는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절학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강했던 저는 그렇게 대학교를 3년 조기졸업하고 현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Q 회사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조력자

제가 우리 회사에 오지 않고, 다른 결정을 했다면 이러한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들을 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안전 분야를 전공하며 회사에서 재난안전/산업안전 분야의 업무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2018년에는 UAE(아랍에미리트)로 가서 파견근무(원자력발전소 시운전)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학교로 바로 진학을 해서, 이러한 이른 시기에 많은 유익한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 했던 결정이 정말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점에서 본다면 우리 회사는 제 인생의 조력자입니다.



달려오면서 힘들었던 점

첫 번째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들에 비해 전공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업무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교육 과정과 선배님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통해 열심히 하면 부족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제 동기들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께서도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대, 대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업무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즐겁게 친구들이 부러워 할 만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대두되고 있어서 후배님들께서는 더욱 즐거운 20살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고졸채용 제도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와 학업의 병행을 통해 더 발전해나가고, 감사드리며 후배님들께서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학년이 되어 취업시즌이 찾아왔고, 저는 여러 곳의 공공기관에 지원하였으나, 결과는 매번 탈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번듯한 기업에 하나 둘 취직하는데 혼자서 학교에 남아 면접을 연습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니 참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옆에서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과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후 밤늦게까지 선생님과 가상면접 연습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고쳐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는 소중한 동지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힘이 들 때마다 주변에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동지 : 나이가 어리다는 것의 장점

정말 우연히도 제가 입사할 당시에 나이가 19살이었는데, 신입사원 채용 기수도 마침 19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19살 19기'로 선배들에게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덕에 모두 아들같이 대해주시곤 했지만,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로 인해 제 가치가 평가절하되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피하는 업무가 있으면 제가 가져오곤 했습니다. “알든 모르든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업무를 배워나갔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크게 혼나면서 제 능력이 모자란 걸까 퇴근길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깨우친 업무들이 자양분이 되어 오히려 다른 직원분이 저에게 업무를 문의하는 상황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배에게 전화로 업무를 물어보곤 했는데, 현재는 그 선배들과 친해져서 업무처리가 수월해졌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의 장점은 실수해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실수해도 물어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이 점을 가슴 깊게 새겨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용기 있게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세 번째 등지 : 고졸취업 말년병자에게겐 고민이 없다

입사 후 1년 반이 지나서 휴직계를 내고,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저에게 군 복무 기간은 정말 행복하고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항상 제대하고 어떤 일을 할지 고민했지만 저는 잠시 회사에서 나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 속에서도 밤잠을 줄여가며 자격증(한국사 1급, TESAT 1급)을 취득했고, 체력 단련을 통해 건강한 신체(특급전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병역의무는 고통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만, 고졸취업 남자로서 병역의무는 감히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네 번째 등지 : 아버지의 건강 악화와 간이식 수술

군 전역 후 아버지께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간이 안 좋으셨던 아버지는 말기간경화 판정을 받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간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2달간 병가를 쓰게 되었고, 제 일을 대신에 하게 된 남은 직원들은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짜증이 날 법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직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건네주며 한마음으로 걱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 돌아가면서 병문안까지 오시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소중한 직장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 몸이 회복되어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목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래전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서 일하던 모든 분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먼저 화가 나면서도 어머니 같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인노무사 취득을 목표로 하여 법학과가 있는 국민대학교 야간 학부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법학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 학과 공부를 우선시하여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공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가까이 돼서 거리에 버려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단권화한 요약 노트를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외웠고, 그 결과 학년 차석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봉사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히 주말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주위에 정말 도와드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꿈의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한 도시락 봉사를 했었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대학 생활을 해온 결과, 성적과 봉사경험을 통해 '대기업 4년 전액 장학생'과 '교육부 주관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빛낸 2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본인이 세운 진로와 배우는 과목의 접점이 많은 곳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늦은 시간까지 쏠린 눈을 부여잡으면서 공부하는 이유를 책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화 :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여기서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혼자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 부화하기 위해선 어미 새가 둥지에서 50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알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빠르게 가려면 여러분 혼자 가면 되고, 멀리 가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고졸취업 후 지난 6년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분들에게 힘을 얻지 못하였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고졸인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고졸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후에도 선후배를 비롯하여 부모님, 교수님, 친구들까지 주위에 든든한 지원군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둥지 속에서 부화하고,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위풍당당한 사회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V

장애인 채용



- 1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 2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 3 장애인으로서의 취업, 그 이상의 환경을 바라며
- 4 다시 뛰는 인생 2막! 국민연금과 함께!
- 5 배려를 통해 입사하여 주위를 돌아보게 되다
- 6 “나 한국재정정보원 다닌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국민연금공단 | 송○○



1. 들어가며

2015년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계약직을 거치며, 정규직이 되기까지 2년간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 전선에 막 뛰어든 이에게는 희망을,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힘이 빠진 이에게는 위로의 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1 취업 전선에서 장애인의 현실

저는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처음 취업을 준비하였을 때 어디서도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중증과 경증사이에 있는 장애를 가진 경우는 서류에서는 가점일지라도 실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중앙보훈병원 장애인인턴 공고가 눈에 들어와 지원했고 합격하여 인턴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턴과 계약직을 했던 1년 7개월간, 스펙을 키우고 NCS까지 상당히 공들여 준비했던 저는 무수히 많은 공기업의 최종면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란 벽은 쉽게 넘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전형으로 면접을 간 한 곳에서는 최종적으로 채용공고보다 적은 인원을 뽑았으나 저는 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답답하여 인사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발표면접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인성면접에서 불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성 면접은 ‘자취 할 수 있는지’, ‘어떤 요리를 하는지’ 등의 짧은 질문만 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화가 나서 정보공개청구를 문의했으나 정보공개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법령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혹여 나중에 불이익이 될까 힘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소개 후 공통 질문 외에는 제게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유일한 여성 지원자에게 면접관은 두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힘쓰는 일도 있고 남자들도 힘들어하는데 괜찮겠어요?” 제게 묻지 않았던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였고, 한명을 뽑는 그 자리는 처음부터 제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몸 자체가 부족한 스펙이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서류에서 지체장애인 저를 탈락시키는 게 낫습니다. 힘들게 면접까지 가서 탈락할 때면 기대했던 마음이 더욱 허탈해져 눈물만 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채용으로 가점을 받아도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장애정도는 어떤지에 따라 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무수히 많은 일반전형과 장애인전형에서 서류합격과 필기시험 합격을 경험했으나 계속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했습니다.

1-2.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계약직이 마무리 되던 시점,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계약직 연장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에 매진하기로 하였습니다. 7개월간의 인턴 경험, 1년간의 계약직 경험, 수많은 자격증 등 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까지 15번 이상의 최종면접에서 탈락하고 힘이 없었던 저는 상반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면접을 보았습니다. 따로 면접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에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솔하게 표현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해결 등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학교생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였고, 마지막 할 말을 하고 면접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마지막 할 말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면접관님, 보시는 거같이 저는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혜를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장애인이기애 그리고 임상병리사이기에 장애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그렇기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7년 5월 국민연금공단 심사직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2. 장애인으로서 취업 준비를 위한 팁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경험자로서 또 같은 장애인으로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2-1.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자

이 말에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선천적 장애인이든 후천적인 장애인이든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제대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클러치, 흔히 목발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보행해 왔습니다.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저를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게 아닌,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할 수 있고, 성산일출봉도 올라갈 수 있고,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이기구도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곳에 취업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꿈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2-2. 경험을 쌓아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 졸업 후, 인턴직과 계약직을 마다하지 않고 지원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일반인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한 번에 정규직에 합격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작은 일부터 경험과 실무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업무 역량을 키워가며 준비한다면 취업의 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2-3. 장애인이라는 강점

장애인전형도 좋지만 일반전형에서 장애인은 가점으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직 장애인이란 타이틀 하나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일반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이란 조건은 엄청난 강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한국사와 워드 및 사무자동화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는데 그 덕분인지 이후 서류전형에서 대부분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2-4. 자소설이 아닌 자신의 소개를 써라

자기소개서에 대한 3권의 책을 3번 이상 읽고 3번 이상 고치십시오.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막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쓴 후, 지인이나 혹은 업체에 첨삭을 의뢰하겠죠. 이것 또한 힘들 경우 혼자서 고민하고 제출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관련 책 3권을 3번 이상 읽고, 제 글을 3번 이상 첨삭한 후 제출하였더니 대부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경험을 풀어쓰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스펙이 아닌 조직문화, 문제해결 등 실무위주로 지원자의 경험을 봅니다. 꼭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아니라도 본인의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간의 갈등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학창시절 누구나 조별과제를 해본 적 있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험을 살려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경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으나, 있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경험을 녹여내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던 자기소개서를 쉽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 손○○



학창시절 저는 그저 평범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진학을 앞두고 전공을 고민할 때 저 또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고, 타인을 돕는 사회복지학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장애 학생들을 보며 장애인복지과를 들어가야겠다는 새로운 진로가 생겨났고 그저 졸업해서 타인을 돕는 좋은 사회복지가 되어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철없고 겁 없던 저에게는 군대도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빠른 생일이었던 저는 1학년 1학기 아직 19살인 나이에 해군에 입대 하였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는 어느 날, 출동을 위해 배가 출항하였고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지럽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자는데도 저는 누가 불을 켜는 듯한 반짝거림을 밤새 느꼈습니다. 15일의 출동을 마치고 저는 눈병이 나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러 군병원을 갔고 외부진료를 받으라며 내준 휴가에 심각성도 모른 채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결과 제 증상의 원인은 망막박리라는 안과질환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밤에 불빛이 없는데도 반짝거림을 느낀 것도 망막박리 진행 증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되돌리는 수

술이 아닌 안구의 모양을 유지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 때문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저는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긍정적인 성격에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이 있었던 저 역시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방황의 시간 끝에 그래도 내 장애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다른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향...

복학 후 2학년이 되고 실습할 복지관에 미리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그곳의 다른 학교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제 경험을 말하며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응원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기대가 무색하게 그 친구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네가 장애가 있다고 모든 장애인을 이해할 수는 없어. 장애인의 불편의 정도가 얼마나 다양한데... 오히려 네 정도의 장애정도와 불편함을 기준으로 모든 장애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

친구의 진심어린 조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마냥 길게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마냥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았기에 선택했던 사회복지사의 꿈.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생긴 장애마저도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만큼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이야기는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 마음으로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내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기준으로 클라이언트를 판단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학창시절부터 막연히 품어왔던 사회복지사의 꿈을 접고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이었던 제가 다른 직군을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의 다른 친구들이 모두 사회복지 직군으로 갔기 때문에 정보도 부족했고 제가 구직을

위해 준비한 경력 또한 모두 사회복지 관련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가 있는 저를 선호하는 회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는 나의 길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영업직, 서비스직, 매장관리직, 협회 사무직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는 의도적으로 피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전해보았습니다.

🔍 사람을 위한 일, 그리고 공공기관

일선에서 사람을 직접 돕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접었다고 하였지만 공공선을 지향하는 직업관을 가진 저에게 돈을 좇는 민간의 일은 매일 저를 잡아 먹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제게 여자친구는 공공기관 취업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직업 안정성 때문에 구직자들 사이에서 공공기관이 인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먼 곳처럼 느껴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찬찬히 알아보니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제가 추구하는 직업관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뒤늦게 공공기관을 준비하는데다 시각장애가 있어 준비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오히려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제한 전형을 통한 채용이 있다는 사실은 제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항상 구직을 할 때에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혹은 월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 만큼 장애는 제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장애인 전형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장애'를 감추려거나 장애를 넘어선 장점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사람이 왜 이 직무에 맞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준비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기관에 장애인식 개선업무는 대상이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인 점과 그동안의 내가 장애와 상관없이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었고, 취미가 스쿠버다이빙일만큼 생활을 하는 지금 내 모습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10년 전 가슴속에 묵혀 두었던 꿈인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입니다. 오랜 방황의 끝에 이른 곳이 장애인정책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이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였지만 돌이켜보면 끊임없는 제 고민의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나의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였던 제게 장애인 제한 전형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합격한 것은 짧은 날에 접었던 장래희망의 실천이자 떠났던 인연이 돌아온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장애인채용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다시 복지업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사 후 신기하게도 그 누구보다 저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학이후로 성장을 멈췄던 사이에도 장애인식이 많이 변해있어 요즘도 단어선택이나 장애인에티켓을 종종 실수하고 있어 저 또한 기존의 인식을 녹이기도, 깨트리기도 하며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채용이 단순히 장애인의 고용뿐만 아닌 다양한 장애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로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장애로 인해 낮아졌던 자존감 회복과 사회구성원으로써 공익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긍심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라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직원이 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장애 직원분들을 보며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환경 이다 보니 장애인이라서 일을 적게 하지도 않습니다. 차별 없는 대우를 받으려면 장애인당사자 또한 본인이 가진 능력과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하고 땀 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채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며 구분 없이 근무하고, 사업체에서는 장애인이 근무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하며 편견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점이 공공기관 장애인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취업, 그 이상의 환경을 바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다. 일주일정도 심하게 감기를 앓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정말 새빨간 혈뇨를 보게 되었다. 그 딱 한 번이었다. 그 뒤로 더 이상 혈뇨도 없었고, 몸에 증상도 없어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관학교에 진학하고자 응시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봤는데 최종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겼었다. 그 때 담당 장교가 한 얘기는 장교를 하러 올 것이 아니라 병원을 가보라는 것이었다. 그 때가 9월이었고 11월에는 대입수능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이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다 군대에 갈 나이가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다. 그 때, IgA신증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병명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병원에서는 군대는 가지 못하고 약물치료만 하면 보통의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따라왔는데 이 병의 절반정도는 예후가 나빠져 만성신부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그 좋지 않은 절반의 확률에 내가 포함이 된 것이다. 21살에 진단을 받고, 23살에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고 24살 되던 첫 날에 누나에게 신장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난 장애인이 되었다. 신장이식은 신장장애 5급이었다. 우리나라 장애가 15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체장애, 그 중에서 중증의 지체장애만 좀 알뿐 그 외 장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장이식을 받은 나는 장애 5급의 장애인이었

지만 주변의 누구도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견상으로는 전혀 표기가 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한 곳이 모 공공기관이었다. 그 때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전형 상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전형과정에서 가점을 주거나 장애인특채로 장애인들만 경쟁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공공기관은 장애인특채로 장애인 응시자들만 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었다. 전형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고 입사 후에도 업무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다니면서 계속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으니 직원들이 장애인 직원에 배려를 해준다고 해도 신장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무엇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을 뽑았으나 업무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입사 초기에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나에게서는 그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투석할 때를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7년 정도 근무 후 퇴사를 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아 대구에 위치한 모 공기업에 다시 취업하여 일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그곳을 퇴사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혈액투석 중이었으며, 투석 중일 때는 장애등급이 신장장애 2급으로 증증으로 분류된다. 사무실에서는 혈액 투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분장 상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었지만 이틀에 한 번 투석하며 일을 하기엔 몸에 무리가 따랐다. 결국 한 달 만에 공직을 그만두고 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취업하게 되었다.

공단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유사 경력이 있는 나로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두 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공직 사회를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나갔으며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는 NCS와 전공(경영·경제·행정 통합)을 봤는데 NCS는 그 동안 다른 기관들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한 상태였고 공단도 직무능력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전공 과목은 각 과목이 개론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부 시절

많이 접했던 전공 지식과 그 동안 행정업무를 경영하면서 익혔던 직무 관련 경험을 살려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전형을 보게 되었는데, 공단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성면접 외에 토론면접이 존재했다.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했지만, 공단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공단의 인재상, 사업범위 등을 사전에 파악하였고 공지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근 공단의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준비하였다. 면접의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준비했던 내용에 맞게 답변을 한 결과 공단에 합격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는 시험만 치면 다 붙는다면서 부러워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공무원은 장애인 채용 비율이 따로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채용 시 전형별로 가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유형이 15가지인데 현직에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그 중에 얼마나 알 것인가?

현장직의 경우 국가에서 직무분석을 통해 어떤 장애 유형이 적합한지, 어떤 장애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등 사무직의 경우 ‘업무 가능한 장애인’ 이 한 마디가 전부이다. 직무를 평가하는 사람들조차 사무직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일단 뽑아놓고 업무가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적응이 어려우면 그만 두는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장애정도와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체력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인사담당자 현실적으로 아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장애에 대한 전공자나 전문가도 아닌데, 채용 예정 업무에 어떤 장애인이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게다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

장애인 직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채용비율을 늘리거나 가점을 주거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업무에 대한 국가적인 직무분석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기업마다 사무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전문을 구성하여

각 기업의 사무직에 대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5가지 장애유형 중 단순히 업무 가능자가 아닌 이 업무에는 어느 정도의 체력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분석이 있고, 장애인의 유형·등급이 사전에 공지될 수 있다면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일단 들어가서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그만두는 형태에서는 장애인 채용 확대에 한계는 분명하다.

이 문제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큰 불만을 가지는 요소다. 과징금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가에서 좀 더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에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NCS직무표준서만 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이 업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장애인 업무에 적응이 어려울 때는 단순히 업무능력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신체능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와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편으로 인한 부적응이 더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정규직 사무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분명 제한적이다. NCS직무표준에 장애에 대한 사항도 꼭 추가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장애인 직원에 대한 배려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시간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채용 시에 미리 결정을 해주든지, 일정 근무시간이 지난 후 평가를 통해 시간을 조절한다던가 보직을 바꿔준다던가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갑자기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배려를 받기 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겠다. 단순히 난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차별적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장애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서 차별을 없애기는 쉽지 않지만, 나부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누군가가 아닌 나부터가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한다.

다시 뛰는 인생 2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 최○○



🔍 나에게도 기회가?

2015년 5월 나는 갑자기 신장장애2급이 되었다. 매주 월·수·금 투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중증장애인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강제로 퇴사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이 되고 난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었던 나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였지만 스스로 퇴직 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성치 않은데 이제 어찌해야하나?

장사도 해 보고, 이것저것 공부도 해 보았지만 주 3회 투석을 해야 하는 나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아무 경험 없이 시작한 장사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하여 1년간의 장사를 접고 더더욱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우리 가족. 어떻게든 일어나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 결론은 취업이다. 나름 10여 년간의 기업 경력도 있고 아직은 젊기에(79년생) 닥치는 대로 사기업, 공기업에 이력서를 넣어 보았으나 근로시간 제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기회를 내미는 기업은 찾기 힘들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9급 공무원을 준비해야하나 고민을 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이나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장애인 서류 면제」이 문구가 나에겐 어둠속에서 큰 빛을 보여주는 한 문구였다. 나처럼 중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체계적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토익, 한국사 같은 자격시험은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이 모든 걸 넘어서 시험에 응시 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실전이다

하지만 서류만 면제일 뿐 시험(NCS와 전공)과 면접이 남아 있었다. 물론 약 4주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채용시험이 예전과 많이 달라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사설업체의 인터넷 강의 말고는 단기간에 시험 준비를 할 방법이 없는 게 참 아쉬웠다. 국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인터넷강의나 상설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사설업체의 인강과 책으로 준비를 하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가장이다'라는 책임감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정말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 기간 묵묵히 응원 해 준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 힘을 내서 공부에 매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험에 합격하였다.

기쁜 마음도 잠시, 바로 이어지는 면접.

면접은 그나마 사회경험도 있었고 가장으로서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합격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장애인으로서 특히, 나같이 준비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채용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처럼 서류를 면제 해주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더더욱 채용의 문이 넓어 질 듯하다. 또한 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정의 콘텐츠가 개발·보급 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 해 보는 바이다.

어렵게 국민연금공단 18사번으로 인생2막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약 2주간의 신입 합숙교육. 하지만 난 매주 월·수·금 4시간 씩 투석을 받아야 한다. 이 일을 어찌하리오. 합격자 발표 후 인사팀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인사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민 끝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바로 지사로 출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많이 배려 해 주는 것 같아 정말 고맙게 생각했다.

약 2주간의 셀프 신입교육기간 동안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책과 사이버 강의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지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담당자 찾아다니며 물어보며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해 보려 하였으나 역시나 역부족이었던 거 같다.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정식발령을 받았다. 지사장님과 팀장님이 나를 배려해 주셔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태가 조금 자유로운 업무로 배정 해 주셨다.

나 또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3여년의 공백이 짧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늙은 신입사원을 지사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 할 수 있었다. 나 또한 구성원들에 녹아들기 위해 투석을 하지 않는 날은 피곤하더라도 여러 모임에 참여하였다.

장애인이어서, 몸이 불편해서,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을 찾아야한다.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서 해 보았다. 예를 들면 문서작성과 엑셀 작업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런 사무 업무를 전담하고 외부에 출장 가는 업무는 타인에게 양보하는 등으로 업무를 조율 하면 장애인이 부서에 들어와서 느끼는 공백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장애인 근무자가 아닌 당당한 국민연금 동울산지사의 주임으로 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Q 앞으로 펼쳐질 나

장애인이 되고, 실업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3고를 당하고 나니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하지만, 장애인채용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해 주었던 국민연금공단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구성원으로 감히 자리를 잡았다고 말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 예전 회사에서 못 이루었던 관리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직은 하위 직급이지만 딱딱딱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들에게도 멋진 남편, 아빠가 될 것이고, 나처럼 후천성장애를 가진 누군가에게도 「저 사람도 이렇게 이겨 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Q 마무리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듯하다. 나 또한 그러했으나 정말 운 좋게 그 깊은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같다.

하지만, 아직도 나와 같은 후천성 장애인들 중 많은 분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헤매고 있을 듯하다. 이런 유의 장애인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한순간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허둥지둥 흘러보내는 시간도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사회에서 충분히 활약을 하던 이력이 있었던 분들이기에 정부와 기업에서 조금의 관심과 배려를 준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건 채용의 문턱을 좀 낮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좀 더 경감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만을 위한 업무를 만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만 조율을 한다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구성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수기를 마친다.

배려를 통해 입사하여 주위를 돌아보게 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강○○



선천적인 신경 이상으로 왼쪽 청력이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진 나는 서른 한 살 전까지 소기업·중소기업 등 안정성이 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회사를 다녔지만 폐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직무능력을 꾸준히 개발할 수 없었고, 나 자신의 마음 또한 '장애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좌절감에 빠져 앞으로 나갈 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힘든 시기에 같이 일했던 지인을 통해 우연히 IT 관련 직무를 접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나의 적성을 알게 된 것 같았다. 이후 IT 관련 기업에 운 좋게도 입사하게 되어 6년간 꽤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였고 관련 직무 능력 습득 및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기업이 그렇듯 이 회사 역시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도였고,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 역시 하나 둘 자신의 안정적인 자리를 향해 이직을 하면서 어느새 나만 홀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

불안한 40대를 마주하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고용이 안정된 직장을 찾고 싶었다. 왼쪽 청력이 들리지 않아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 이런 점을 극복할 IT 직무 경험이 장점으로 쌓였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나이가 서른 일곱인 점이 매우 걱정되었다. 그리고 과연 '입사를 하더라도 '중고신입'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았다. 다행히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여 나이·성별·학력으로 차별하지 않고 있었고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둘 이력서를 제출해 보았으나 역시나 서류부터 통과가 쉽지 않았다. 많은 탈락을 맛보았다. 그렇게 조금씩 지쳐갈 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애인 IT 직렬 채용공고가 올라왔고, 이 채용 기회를 놓치면 영영 공공기관이라는 안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취업의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서류전형 이후 인적성검사가 이루어졌고 면접은 블라인드 형태로 직무관련 내용 중심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아직도 기억이 나는 점이 있다면 내가 청력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면접관님이 큰 소리로 질문을 해 주신 것이었다. 내가 떨지 않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답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면접관님의 배려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동안 배워왔던 직무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이 돼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보지원팀에서 IT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사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많은 걱정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장애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나이 많은 신입으로 들어와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약 2주간 동기들과 신입 연수를 받으면서 부서에 배치받기 전까지 또 다른 두려움에 많은 고민을 했었다. 다행히 동기들이 마음이 착한 분들이 많았고, 덕분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팀은 공사의 많은 부서와 직원에게 정보화 관련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팀에서는 직급에 따른 자리가 아닌 주변 직원의 말을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가운데 자리로 배치를 해주셨고 이러한 배려를 통해 문제없이 업무 관련 의사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청력장애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서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의 불편함을 주변 동료 분들에게 말씀드렸다. 그 후 자연스럽게 대화 중 내가 듣기 편한 위치로 가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이런 불편함을 아시고 주변 회사 동료들이 나에게 미리 좋은 자리를 배려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같은 팀의 멘토였던 선배님에게 너무 감사한 점이 많다. 선배님은 내가 나이도 많은 ‘중고신입’이며 청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 입사 때부터 다양한 배려를 해주었다. 특히 내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공공기관에 딱 맞지 않는 직무 경험이었지만 그동안 해온 나의 IT 직렬의 근무 경험을 항상 높게 말해주고, 내가 주변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두 번 세 번 물어볼 때가 많았는데도 늘 반복해서 답해주고 항상 웃으면서 나를 대해줬다. 내 바로 위의 선배가 나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을 주니 나 또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자연스럽게 싹틔고 다른 동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다.

나의 일신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고, 전반적인 직장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내가 속한 회사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마침,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상 공모전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전산업무를 배우면서 알음알음 동영상 편집 기술을 익혀 왔던 참이었고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합심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 여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에 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해 오던 비정규직 근로자 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서 출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사 동기 세 명과 의기투합했고, 공사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밤새 영상편집하고, 작은 시사회도 가지는 등 내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경험도 맛보았다. 그 결과,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공사에 미약하게나마 보답할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진 이를 회사가 채용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조직과 잘 융화되어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걱정이 될 것이다. 편의를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가 없다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법정 의무사항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 후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는 조직의 문화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다행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조금의 불편을 나누어 가지고 나에게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꿈을 실현할

“나 한국재정정보원 다니다!!”

한국재정정보원 | 김○○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에 재직 중인 김○○이라고 합니다. 벌써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담당업무는 시스템운영이며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다 보니 어느새 후배들도 생기고 회사 생활이 한층 윤택해 지고 있습니다.

재직 중 건강문제로 인해 1달 정도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모두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도 무탈하게 업무 수행 중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체장애(척수장애)인입니다. 한때는 1급이라는 급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매우 심한 하지마비 상태라는 수식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으며 그때가 2015년 12월입니다. 그 후로 9개월 정보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 후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어 장애인 협회 계약직으로 9개월 정도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자립의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목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건축을 전공하였지만 제 길이 아님을 깨닫고 해외 파견 근무도 해보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영업일도 해보고 배낭여행도 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를 당했으며 제 주변인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일어나기 위해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주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들 병원 밖을 두려워하였고 저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성향이 아니었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퇴원 후 1달 동안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일상홈”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척수장애인과 생활하게 되었는데 장애인들이 제한된 방향의 직업을 다수 선택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 향후 서울척수장애인협회에서 9개월간 일하게 되었을 때는 척수장애인분들과 상담 및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감”과 “당담함”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지만 사회에 다양하게 진출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도 생겼고 여자 친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2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 저도 자신감도 생겼고 조금 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지식을 쌓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단체이며 장애인들에게 각종 직업능력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예전에 혼자 프로그램 공부를 해보며 첫 개념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렇게 찾아보니 이 기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와 면접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통과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많지만 50대까지 연령의 분포가 이루어져 있고 체육시간 및 CA시간이 있는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마지막으로 기숙사까지 운영합니다. 기숙사 덕분에 이동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제가 공부하는데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구성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자격증 시험, 프로젝트 진행 등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고 어찌다보니 반장도 하면서 원내에서 상장도 몇 번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 공모가 떴을 때는 기대를 하고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3일을 바쳐 작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상장 받은 것까지도 이력서에 입력했습니다.

그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업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급하게 NC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집도 구입하고 공부 시작!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서 치른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 없이 학업에 다시 몰두하였습니다.

필기도 합격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당황도 했지만 실 틈이 없어서 면접을 준비! 짧은 시간의 준비도 준비지만 기반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면접장에서 ppt를 작성하고 면접관님들을 뵈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면접장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덕분에 합격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입사 후 짧은 교육을 받고 담당업무로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공부, 공부. 그러다 보니 조금씩 업무를 알게 되고 하나, 둘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 지금은 11개월 차 사원으로 당당하게 한자리 차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사원이 저 한명이라 전 직원의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휠체어를 탑승한 사람이 나 하나일까?’라고 가끔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기억해보면 입사시험 때도 휠체어 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다리며 모든 지원자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증 장애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장애인 단체에 속해 있을 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보면 중증 장애인들이 결국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은 그만큼 인식이 낮은 듯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더 편한 교통수단도 지원되지만 저는 지하철이 좋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도 지하철,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아. 물론 서울에서는 지하철, 버스가 최고이지요. 하지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꺼리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래서라도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식 변화의 시작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8살이 됩니다. 슬슬 노총각 소리를 들을 나이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여자 친구와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다보니 전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친척들을 만나 술도 한잔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요즘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살이 썩어서 고민인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늦은 나이에 자립도 했지요.

지금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한국재정정보원”에 다니기 때문이겠지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다닌다!”라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V

지역인재 채용

-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인·학교·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 2 P2C (지방에서, 중앙으로)
- 3 지방만의 강점을 살린 공공기관 취업도전기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인재 합격수기
- 5 준비된 인재, 전략적인 취업 스토리!
- 6 대한민국 균형 발전, 균형 잡힌 인재 채용

01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인·학교·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한국자산관리공사 | 김○○



🔍 취업 준비기간 동안의 나의 동력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소식은 막막하고 어두웠던 저의 취업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4학년 졸업반이 될 때까지도 진로를 정하지 못하여 방황했습니다. 대부분 사기업은 취업 설명회부터 필기시험 응시 장소, 면접 장소 등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조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라 부를 만큼 취업의 문턱이 높다 하여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지역인재를 합격 예정 인원의 18%를 채용하는 목표비율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개최되는 공공기관 취업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먼저 공공기관에 입사한 지역인재 선배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필기전형부터 면접전형까지 취업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 방향도 차츰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관문인 필기전형 준비만 잘한다면 지역인재 가점도 받아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인재 채용은 단순히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암담할 수 있었던 저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희망을 잃지 않는 동력을 주었습니다.

🔍 지방대에도 기회가 존재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대학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을 복돋아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대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지방대학 진학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지방대에 진학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멘토링, 과외, 그리고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제게 했던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을 고민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전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배우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교내 공모전을 통해 유럽탐방도 다녀왔기 때문에 드넓은 세상을 충분히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도 전문을 넓힐 방법은 꼭 수도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 등을 더 고려하여 대학 선택지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기회에 있어서만큼은 지방대에 진학해도 좋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대다수의 사기업이 수도권에 포진해있고, 특히 부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고령화 도시로서 건실한 사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하고 난 후에는 기회의 측면에서도 지방대에 진학해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 정책의 덕택으로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대학 동기와 선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늘며 취업률이 개선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NCS 모의고사 및 풀이, NCS 기반 모의 면접 등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경영대학에 금융 공기업 취업을 위한 고시반이 개설되는 등 공공기관 취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누적된다면 추후에는 지방대학 인원 감축에 따른 재정 부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대학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부산의 재도약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정책은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 젊은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한 부산의 경우, 금융공기업의 이전으로 인해 문현 금융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출신인 저의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도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면서 집에서 독립하여 부산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동기들도 저에게 주말에 갈 부산 맛집을 물어보아서 함께 부산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안정화되고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더욱 증가한다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유관 업체나 지방 공기업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취업에 성공하여 좋은 점이 정말 많지만, 지역인재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부듯하고 우리 공사에 더욱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이 금융 혁신 사업의 거점으로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역 인재 분들도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하시어 '나'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P2C (지방에서, 중앙으로)

창업진흥원 | 안○○



Q 입사 수기를 작성하며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신입 안○○이라고 합니다. 대학시절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며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관련 경력들도 쌓을 수 있었고, 일을 한다면 보다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취업이란 벽 앞에서 많은 고배를 마시며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취준 생활을 뒤로하고, 지난 4월 드디어 목표로 했던 공공기관의 재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 공고를 쓰며 비수도권에서 취업준비를 했던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역적 소외를 극복한 저의 이야기를 이번 입사 수기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Q 창업진흥원에 오기까지

저는 현 직장 창업진흥원에 올해 4월에 취직하기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서 청년 인턴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시절 1년간 무역사업단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지원 활동을 했었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의 날 정부포상 심사 지원 인턴을 하며 산업부에서 행정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창업 지원을 통해 보다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은 생각을 했고, 지속적인 취업 스테디를 하며 결국 국가 창업지원 사업을 책임지는 이곳 창업진흥원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인재로서 겪은 지역적 소외 어려움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취업준비를 했던 비수도권 취준생이었습니다. 근래 ‘오픈채팅방’, ‘취준생 카페’ 등 과거보다 쉽게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고, ‘비수도권 가점’까지 받는데 무슨 지역적 소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규모의 도시에 살며 제가 겪은 지역적 소외는, 중소 도시의 취준생으로서 필기, 면접스터디 등 취준생 커뮤니티와 제반서비스의 부재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취준생 커뮤니티 등의 부재는 취준생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부재 한다는 것이고, 제반서비스의 부족은 커뮤니티의 부족함을 덜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NCS, 면접을 코칭 받을 수 있는)의 부재입니다.

실제로 어렵게 NCS기초능력평가 필기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정보를 얻고자 취준생 카페를 들어가면 ‘서울 00구 면접스터디’, ‘성남 분당 면접스터디’ 등 수도권 취준생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은데 반해,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저는 주변에 참여할 수 있는 취준생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적어 혼자 다음 전형을 준비하고는 했습니다. 또한 내가 면접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등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부재하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와 지원프로그램의 부재가 취준 생활을 하면서 겪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나 홀로 준비를 했고, 간혹 취업정보나 불안할 때면 정보가 많고 서로 잘하고 있는지 봐주면서 준비를 할 기회가 많은 수도권, 대도시 취준생들이 부럽게 느껴지고는 했습니다.

Q 커뮤니티 부재의 극복

이러한 지역적 소외가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하고자 했고, 학교 취업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취업준비를 처음 하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만들어 PT발표, 모의면접, 입사선배 멘토링 등 혼자였을 때는 할 수 없거나 정보가 없던 것들을 취업지원센터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다 같이 모의면접과 PT면접을 해보고, 공공기관 입사 선배를 초빙하여 노하우를 배우는 등 많은 걸 배우고 보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청년인턴 기회를 활용하였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속해있어서 수도권에 비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청년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경험을 통해 직장경험을 해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과 행정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인턴 경험이 지금의 직장에 취업하는데 경력적으로 디딤돌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같이 스터디하며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모두 취업준비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았지만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의지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서로 알아봐주기도 하는 등 외로울 수 있었던 취업 생활에 무엇보다 큰 정서적 지지가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 등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인사직무를 맡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쌓아왔던 업무들과는 다르고 처음이지만, 신입으로서 직장 선배님들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준정부기관으로 탈바꿈한 이곳 창업진흥원에서 임직원들은 위한 보다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저의 입사수기가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목표로 하는 곳에 취업해서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만의 강점을 살린 공공기관 취업도전기

한국자산관리공사 | 김○○



지역인재채용이 준 자극, 도전을 이끌다

학부 시절 공공기관 취업은 정보도 얻기 힘들었고, 주변에서 취업사례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방대 취업준비생들의 분위기 또한 공공기관은 도전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교수님들도 관련전공을 살린 사기업 취업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건축을 전공하며 평소 공공적 가치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부 내에서 스터디를 모집하고 인터넷 카페 및 재직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첫 도전을 할 때 공공기관 채용공고에 지역인재채용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기우였겠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마음한구석에 있었는데 이 문구를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대 출신을 강점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에도 지사가 있기에 순환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몇몇 기관들은 본사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인터뷰에서 수도권 출신들이 이를 견디기 힘들어 그만두는 사례도 많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과정에서 지방에 대해 이해가 깊고 애정이 많은 점, 지방 순환근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30개월 정도 근무를 하며 역량을 쌓고 시야를 넓혀가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축 업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직 중 이직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역인재채용을 한번 경험해보았기에 자신감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년 부산이전 후 과도기를 지나 정착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인재채용 제도를 펼치고 있었고 저는 또 한 번 좋은 결과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지역인재채용으로 취업에 성공해 역량을 쌓고,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합격을 위해서는 전공필기시험, 기업분석, 면접 준비 등 개인의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역인재채용제도는 이런 노력들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역인재채용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저희 학번 전후로 많은 선례들이 생기게 되었고, 학부 내에서도 매년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을 초청해 후배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Q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토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청년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해 졸업 후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 하면서 청년층 이탈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지방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력 있는 청년층의 확보는 소비와 경제를 선 순환시켜 지역발전을 이끌고 도시를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대학교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학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는 진로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적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비전이 수도권 대학에 비교적 낮았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과 지역인재채용이 자리 잡으면서 지방대만의 장점을 갖추게 되었고, 입학 경쟁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꾸준한 유입은 지방대가 더 발전하고 오래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런 긍정적 효과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붐 시대에서 세대가 바뀌면서 지방 도시들이 점점 쇠퇴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위주로 생활권이 편성되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좋은 정책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기업들이 수도권과 특정도시에 몰려있고, 지방은 대학이나 문화 공간 같은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지방도 인프라와 산업기반들을 점점 갖추고 있고 공공기관이 입주한 상징성도 생기며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인재채용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지역인재채용은 대승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수도권 지역의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 역차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 정책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조성 특별법”에 의한 이전지역인재채용이나 권역순환근무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역권 구분채용은 근무지 특성상 이러한 채용전형이 훨씬 효율적이고 역차별의 반발이 다소 적지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수도권 취업준비생들을 역차별 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몇몇 공공기관들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지역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대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학생들을 수도권으로 불러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전형 대상이 아닌 불합격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제도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경우 또한 종종 보입니다. 지역인재채용이 더 자리 잡게 되면 수도권 지역 학생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이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끈기, 그리고 가치관에 관한 고민

두 번의 채용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공공기관채용 원서접수가 끝나면 취업준비생들은 몇 십, 몇 백 대 일이라는 경쟁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는 모두가 같은 조건입니다.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많은데 저걸 어떻게 뚫느냐 하는 생각보다, 내가 제일 열심히 해서 저 중의 한명이 꼭 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채용과정을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탈락을 경험하면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탈락의 과정에서 배운 경험들이 양분이 되어 결국 합격의 꽃을 피워 준다고 생각합니다. 탈락할 때 마다 부족한 점을 찾아 점점 더 성장하고 대비를 하는 만큼, 꾸준히 달리고 있으면 적절한때에 자신에게 맞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실제로 입사동기들과 얘기해보면 대다수가 수십 개의 지원서를 썼고 몇 번의 불합격을 경험하며 이를 참고 또 참아냈다고 하였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우리가 단단해질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자기 직업관에 대한 신중한 고민입니다. 가장 큰 실수가 공공기관이기만 하면 별 고민 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종류도 무척 많고 기관별로 비전도 다양하며, 근무형태나 근무지 또한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지원을 한다면, 합격을 한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열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되돌리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에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준비에 앞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 봤으면 합니다.

이제 취업은 하나의 큰 난관이자 인생의 주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인재 합격수기

한국자산관리공사 | 유○○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이곳이 두 번째 직장이기에 소위 말하는 취준생 시기를 두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인재로서 두 번째 취업을 준비하며 첫 번째 취업준비 당시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기에,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고 그 선례 또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지방대라는 학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서 대학동기들 또한 공공기관보다는 사기업 입사를 중심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채용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금은 지방의 학생들도 공공기관에 입사 지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고, 여러 기관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예전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높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인재채용과 동시에 직무능력중심채용제도가 함께 도입되면서, 전공능력과 NCS역량 등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또한 진입장벽을 낮춰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에서도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스터디 등이 활성화되었고, 저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스티디를 어렵지 않게 꾸려 함께 공부하며 최종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인재채용이 가진 다음과 같은 장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채용제도가 가진 첫 번째 장점은 금융공기업에 지방대학교 출신의 지원자가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에 지방의 학생들은 금융공기업에 입사시험을 치를 기회를 갖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이에 지레 겁을 먹고 도전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저를 포함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지방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공사 또한 취업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많이 도입하여 이제는 지방에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금융공기업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뤄낸 지원자들이 증가하며 앞서 언급한 편견을 많이 깨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방의 학생들이 오로지 취업만을 위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중인 대구의 경우에도 광역시이긴 하지만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대학 동기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가 보다 풍부한 수도권 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을 떠나 홀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러한 부담을 많이 줄였고, 저 또한 대구에서 그리 멀지않은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우리 공사에 취업함으로써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한다는 아쉬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지역인재채용이 없었더라면 저 또한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거주비, 생활비 등 자금상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이러한 두 가지 아주 큰 장점 덕분에 대한민국의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목표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인재라고 해서 수도권 지원자들에 비해 공공기관 취업이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채용의 경우에도 제가 지원한

경영 직렬의 경우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원자의 필기점수 커트라인이 동일하였고, 동기들도 수도권 출신이 더욱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대학생들에 비해 정보와 선례가 부족한 지방의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자 간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오히려 수도권대학 출신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수도권소재 대학의 졸업자라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면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공사 입사를 위해 거쳤던 전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전형

우리 공사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불성실 기재를 제외한 지원자 모두에게 필기시험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수 지원 자격만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의 경우 서류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면접에서 지원자의 첫인상이 될 수 있기에 항목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필기시험

저는 어문학을 전공하였기에 경영학을 별도로 공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원자들의 경우 경영학과 경제학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상대적으로 과목이 적으나 진입장벽이 높고, 경영학의 경우 일반경영, 회계, 재무관리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공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과목을,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정보를 습득한 후 본인에게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해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재무관리는 회계사 1차 수준, 재무회계의 경우는 7급 공무원 수준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 면접전형

우리 공사의 면접전형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간 이루어지는데, 전공PT면접, 심층면접(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AI면접, 토론면접, kick-off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는 전공PT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1차 면접 스테디를 2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 업무 분야가 다양하고 수행 업무가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전과 유사하게 시간에 맞춰 PPT를 작성하고 스테디원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차 면접의 경우 전공적인 지식과 역량을 뽐내기 보다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업무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사에 대한 간절함과 공사에 대한 로열티를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한다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인재, 전략적인 취업 스토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 사원입니다. 중진공 채용 설명회에서 처음 채용설명을 들으며 입사를 결심했던 학생이 지금 그곳에 입사하여 입사 수기 공모전을 쓰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취업이라는 터널을 걸을 땐 많은 고민들과 불안감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믿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지역이전 공기업들과의 첫 만남

2016년 교내에서 시행하는 이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갔다. 그곳에서 많은 공공기관을 만나게 되었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을 봤다.

이러한 이전공공기관들의 채용박람회는 취업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평범한 대학교 3학년이었던 내게 목표를 주었고 관심 있는 기업들의 채용 내용을 재직자에게 들을 수 있어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다.

특히 지방의 학교에 다니며 얻을 수 있는 한정된 취업 정보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가고 싶은 기업을 정하고 그 기업의 채용조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준비된 인재를 만들어준 큰 계기가 되었다.

이전공공기관들의 활발한 활동

지방으로 내려온 공공기관들의 파급력은 굉장했다. 다양한 기업들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체험형 인턴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채용 박람회 등 당시 학생인 내가 느끼기에도 공공기관들은 이미 오랜 기간 지역에 머물렀던 기업인 것 마냥 지역에 스며들고 있었다.

기업들은 방학 대학생 체험활동, 인턴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준비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줬다. 또한 그런 기업의 대응에 맞춰 학교도 공공기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쓰기, 취업 멘토링, 현직자와의 토크 콘서트, NCS 모의고사 시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생들이 채용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기업, 학교가 나서서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공공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

나는 주변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원하는 기업에 빨리 취업을 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머리가 좋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평범했던 대학생활에서 딱 하나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건 바로 명확하고 확고한 기업선정이었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어느 기업을 가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답은 비슷했다. '아직 못 정했다, 그냥 아무 공기업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이른 학년부터 명확하게 가고 싶은 기업이 정해져 있었고 증진공의 채용 공고를 보며 입사에 필요한 부분 맞춰 준비할 수 있었다.

먼저 내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에서 업무경험이 큰 경험이 될 거라 믿고 4학년 1학기에 큰 결심으로 휴학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전공을 살려 근무 했었다.

또한 나는 2년의 시간동안 회사 뉴스, 중소·벤처기업 뉴스를 스크랩하여 파일로 정리 하며 항상 관심사를 두고 생활을 했다.

이렇게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한 내 노력은 NCS 시험 발표 후 일주일 뒤 치러지는 면접에서 타 면접자보다 뛰어난 회사에 대한 지식과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던 내 경험들이 6.5:1이라는 면접을 뚫고 빠른 시기에 취업에 성공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기업을 선정하고 그곳을 목표로 계획했던 전략적인 준비가 내 취업방법이다.

Q 기업, 학교, 학생 삼박자로 탄생한 지역인재

나는 모두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많은 의미를 줬다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인재채용이라는 부분도 큰 부분의 의미를 차지하지만, 나는 그보다 지방 이전 공기업, 학교, 학생들의 변화가 참 눈에 들어왔다.

- ① 많은 사회공헌활동, 채용 박람회 등으로 학생들이 미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많은 기업들
- ② 기업들의 행동에 맞춰 생겨난 취업클리닉,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NCS 모의고사 등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
- ③ 기업과 학교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NCS 스테디, 면접 스테디 등 다양한 대외 스테디 활동

이 세 가지의 변화는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을 시작으로 생겨난 긍정적인 효과이며, 지금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고 기업과 학교의 지원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곳곳하게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 균형 잡힌 인재 채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김○○



저는 2019년 상반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합격하여 현재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4학년 2학기를 마치자마자 합격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서울에 올라와 입사했습니다. 지역인재로서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반년 전 간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처럼, 지금 열심히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Q '지방대는 성실함이 답'이라는 교수님의 말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과목이라 좋은 학점을 포기하면서도 교수님의 쓴 소리와 뒤에 숨은 따뜻한 조언을 듣기 위해 꾸역꾸역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방대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성실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찾을 수 있는 대외활동과 광주에서 찾을 수 있는 대외활동의 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서울에 비하면 확연히 적습니다. 수도권에 비하면 지방은 취업 스펙을 쌓기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도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학점의

곧 ‘성실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방의 인재들이 취업을 위해 겪는 모든 수고로움이 곧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취업스터디, 자기소개서 작성, 토익점수 갱신, OPIC 시험, 팀 프로젝트, 면접 준비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기 말에는, 주중에는 광주에서 기말고사를 보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회사 필기시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5만원이 훌쩍 넘는 주말 숙박비가 아까워 시험 당일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시험을 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날 새벽 5시 30분, 서울에 도착해 텅 빈 터미널을 바라보며 ‘취업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함’으로 이겨내자고 다짐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기업 정하기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야?”라는 질문에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 취업준비를 시작할 때의 저는 가고 싶은 회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급여 수준이 어떤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가고 싶은 회사 LIST>를 작성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공기관 리스트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알리오(ALIO)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이 하는 일, 위치, 채용하는 직무, 급여 수준, 채용절차 등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치기를 하면서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가고 싶은 회사 LIST 작성하기’는 학기 중이라 정신없이 지내던 저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시험을 많이 경험하라’는 조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무색하게도, 저는 지방 거주민이고 들일 수 있는 시간적·금전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기회를 잡을 수는 없지만 나만의 리스트에 있는 기업만큼은 꼭 지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직무, 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미리 파악하고 지원했기 때문

에, 면접 준비를 할 때 한층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학기 동안 총 세 번의 시험에 응시했고, 두 번의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학교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전남대학교에서는 동계·하계 방학에 ‘취업에이스’라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야, 회사, 직무, 전공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스터디를 매칭 해줍니다. 여기에 스터디 장소 제공, NCS 시험대비 현장강의,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모의면접, 취업선배의 멘토링,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에 쏙 드는 스터디를 만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내에서 나와 같은 회사, 같은 직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함께 묶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인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스터디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갓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모교의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에이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온라인에 없는 게 없다지만, 지역 간 정보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재직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뿐더러 모교를 졸업한 선배가 와서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말처럼,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기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에게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기 중에 취업을 준비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취업 준비를 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카카오톡 채팅방에 '하루 스케줄'과 '오늘 할 일'을 썼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정해진 일과 외에 자투리 시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침에 정한 '오늘 할 일'을 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하나씩 끝내곤 했습니다. 수업 사이사이 공강 시간도 활용했는데, 예를 들면 한 시간이 빌 때는 자기소개서 작성, 스터디 과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생활습관이 늘어지기 쉽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최대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1~2교시 수업을 시간표에 넣었습니다.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스터디 과제를 하거나, 전공필기시험 공부를 하는 등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할 일을 다 끝내기도 전에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고, 조금이라도 더 책상에 앉아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야외활동을 하면 집에 가고 싶어지는 일명 '저질체력'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후문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를 활용했습니다. 학교 스포츠센터의 장점은 재학생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저 역시 월 23,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사실 필라테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운동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장기전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의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역인재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어려움은 취업 인프라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서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여러 기관의 부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보고 듣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인재는 한정된 정보로 취업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로 채용설명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각종 취업 전문 학원이 있는 것처럼 지역의 대학에서도 다방면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 트렌트와 이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청년인턴 |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고졸 채용 | 장애인 채용 | 지역인재 채용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